

제10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2018. 9. 17(월)~11. 2(금)

| 주최 · 주관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공모부문

- ▷ 다문화 인식개선 포스터
- ▷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자료, 교육수기
- ▷ 다문화 상담사례 상담사례

| 참가대상

- ▷ 전국 초 · 중 · 고 학생, 학부모, 교원, 다문화교육 지원전문가 및 상담(교)사

| 응모일정

- ▷ 응모기간 2018.9.17(월) ~ 11.2(금)
- ▷ 수상작발표 2018.11월 중(수상자 개별연락)
- ▷ 시상식 2018.12.3(월)

| 접수방법

- ▷ 해당 지역 시 · 도교육청으로 접수
- ※ 응모양식 및 출품규격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nile.or.kr) | 중앙다문화교육센터(www.nime.or.kr)

| 문의처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02. 3780. 9785



| 시상규모

- ▷ 교육부장관상 총 26명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총 35명
- ▷ 시상금 총 2,200만원

| 시상내역(총 61명)

공모부문	참가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계	
다문화 인식개선	포스터	초·중·고 학생	3명 (초·중·고 각1)	3명 (초·중·고 각1)	7명	
		교육자료	유치원교원	1명	3명	5명
			초등교원	1명	3명	5명
중등교원	1명		3명	5명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수기	초·중·고 학생	1명	3명	5명	
		학부모	1명	3명	5명	
		유치원교원	1명	3명	5명	
		초등교원	1명	3명	5명	
		중등교원	1명	3명	5명	
		다문화교육 지원전문가	1명	3명	5명	
다문화 상담사례	상담(교)사	1명	3명	5명	9명	
합계		11명	15명	35명	61명	
훈격		교육부장관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시상금		각 100만원	각 50만원	각 10만원		

※ 시상내역은 공모 접수상황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육

행복한 교육 2018년 10월

특별기획 _ 대학구조의 문제와 학사제도 개혁방안



Vol. 435. 2018. 10.

특별기획 _ 대학구조의 문제와 학사제도 개혁방안
지금 혁신교육 _ 경남행복학교 '봉명중학교'

CONTENTS

October 2018 Vol. 435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2 장관 취임사

04 특별기획

대학구조의 문제와 학사제도 개혁방안

06 학생 수 감소는 대학체제 개편의 기회다

08 유연한 학사제도로 발 빠른 대응 ①포스텍 ②서경대

14 대학(원)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 추진 방향

18 사회 문제를 '발견 - 해결'하는 미래형 인재 키우다

20 세계의 교육 변화

해외의 교육시스템이 '진화'하고 있다



현장이야기

22 **지금! 혁신교육** 경남 행복학교 '봉명중학교'
교사의 기다림과 믿음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26 **삶과 교육** 탁동철 강원 상평초등학교 교사

30 **이런수업 어때요** 한경화 교사의 국어과 수업

34 **아하! 진로체험** 경기도교육청 예술공감터

38 **나눔 실천하는 사람들** 전남 학습자중심교육연구학회

40 **명예기자 리포트** '북한 음식 체험의 날'로 통일 앞당겨요! 외

정책이야기

46 **정책N전망** 2019년도 교육예산으로
삶의 활력을 더 플러스 합니다

50 **정책카툰** 교육지원 한눈에

52 **이슈**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

56 **꽃 피는 교육자치** 인천/강원/부산/광주/경남/충남/전남

60 **초점, 4차 산업혁명** 융합이 낳은 공짜 세상, 공유의 시대



정보이야기

62 **교육 썰전**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과 학교의 역할

62 온종일 돌봄과 학교의 역할

64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66 **학급운영노트** 무기력한 아이들, 어떻게 지도할까

68 **아이의 다락방** 도덕지수 낮은 영철이

70 **이야기 인문학** 우리는 왜 혐오하는가

72 **일상의 썬표** 천년의 빛을 머금은 고장, 영광

76 **뉴스브리핑**

79 **행복 게시판**

표지이야기

봉명중학교(교장 윤혜경)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다.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 목공 실습을 위해 쌓아둔 폐목자재 위에서 학생들이 활짝 웃고 있다. 지금은 폐목자재지만 학생들의 손길을 거쳐 의자, 탁자 등의 작품으로 탄생하면, 학교 곳곳의 쉼터에 놓일 예정이다.

“급변하는 사회 유연하게 대처하는 미래 인재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이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 후보자 지명을 받으며,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01년 6월 7일 앨빈 토플러가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보고서를 보며, 대한민국의 교육패러다임 전환은 선언적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에 바탕을 두고 바뀌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굳건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은 가르침을 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소수 상위권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경쟁교육 중심이며, 대다수 아이들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 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 학부모들은 무리한 교육비 부담에 고통 받고,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잃은 채 학교폭력, 우울증 등 마음의 병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시스템 구축

2001년에 한 미래학자가 지적한 우리 교육의 문제는 2018년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삶,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 교육은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학생 성장 중심 교육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개별화 교육으로 바꾸어야 하고 청년들과 성인에게 제공되는 평생·직업교육 또한 전 국민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교육의 방향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 중심의 미래교육계획을 단기-중장기 로드맵으로 구체화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도해 나가는 미래인재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부에 교육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현장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하고, 곧바로 미래교육 계획안 마련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미 바뀌고 있는 부분은 속도를 더 높이고, 장애요인은 개선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래인재양성 사업과 예산을 체계화하고, 사회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회부처들의 협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둘째, 미래 비전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 결정의 새로운 거버넌스인 <국가교육위원회>를 2019년에 출범시키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초중등교육 권한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해, 발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이미 국정과제로 설계된 미래인재양성 관련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면서 정책의 집행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고, 학교가 창의적인 학습공간이 되도록 미래형 교실모형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쉽이 있는 공간과 창의적인 생각이 열리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미래사회 지식창출을 위해 학술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내년 고교무상교육 실현, 130만 명 혜택

저는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되는 교육정책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비급여 단가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비 절감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첫째,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문재인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출발선의 불평등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출발선보장 프로젝트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 돌봄교실 20만 명 확대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온종일돌봄교실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돌봄체계 실무지원 TF>를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한글, 수학 등 기초학력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힘을 합해 부모의 마음으로 세심하고 따뜻하게 챙기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데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전, 공기질 관리부터 학교폭력 문제, 미투 문제 등도 현실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확정 발표된 <2022 대입제도개편안>이 현장에 안착 되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국민 눈높이와 현장의 수용정도와 준비상태를 고려하여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대학, 시·도교육청,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책 발표 후 피드백까지 현장과 밀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0월 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 위의 글은 취임사 축약본이며, 원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별기획

대학구조의 문제와 학사제도 개혁방안

세계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조응하면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들은 시대 변화에 맞춰 대학체제를 개편하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포항공대는 무학과 무전공 제도를 통해 학과 칸막이를 허물고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서경대는 실용학문의 산실이자 소수정예 강소대학으로 미래형 실용교육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춰 개혁을 시도하는 고등교육 사례를 소개한다.

1. 학생 수 감소는 대학체제 개편의 기회다
2. 유연한 학사제도로 발 빠른 대응 ①포스텍 ②서경대
3. 대학(원)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 추진 방향
4. 사회 문제를 '발견 - 해결'하는 미래형 인재 키우다



학생 수 감소는 대학체제 개편의 기회다



인구절벽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의 변화가 심각하다. 급기야 2017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을 기록하여 최저를 기록하였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금년 7월 보고에 따르면 올해 1~4월 출생아 수(연간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시기)가 전년 대비 9.1% 감소했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0.05명 이상 떨어져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교육부가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대학 입학자원이 급감하고, 2018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2020년 이후에는 그 간극이 더 심하게 벌어진다고 한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22년까지 3주기에 걸쳐 대입정원 16만 명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수립하고 1주기(2014-2016)에 4만 7천여 명을 감축하여 당초 목표 4만 명을 상회한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역량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개선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누고,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 정원감축을 의무화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기본적으로 향후 고등교육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사회적 요청에 기인한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도입 등으로 국민의 세금이 부실대학들의 연명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정부가 거부할 명분이 없으며, 이에 교육이 부실한 대학들을 가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명분은 대학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본질적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학부교육은 대학의 3대 기능 중 학생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대부분 교육역량의 우열을 가리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세계적으로 변화된 고등교육환경에 조응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외적인 동인과 함께 일차적으로 정원 감축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개별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정원 감축+ 교육의 질 제고 → 교육경쟁력 향상 →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의 구도로 목표체계가 구성되며, 그중에서도 ‘정원 감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핵심 요체이자 정책의 일차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구조개혁의 초점을 단지 물리적인 정원 감축 그 자체에만 두지 않고 교육의 질 제고와 병행하게 된 것은 ‘규모와 성과(질)의 관계’에 대한

고등교육이라는 무한지대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조직으로서 대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구성원들이 드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한다.

이론적·실제적인 면에서의 경험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적정규모 정원 감축으로 교육의 질 제고

먼저 이론적인 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학급 및 학교 규모는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교육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관련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밀한 교육 규모 혹은 과소한 규모보다는 적절한 규모의 교육 크기가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축소지향의 정원 감축 혹은 확대 일변도의 양적 팽창 모두 교육에서의 효과를 생각하면 대학구조개혁의 정답이 아니다. 따라서 적정한 규모의 정원 감축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매개변수 즉, 합당한 정책 개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요체는 감축과 팽창의 일차원적 선행의 어떤 지점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하는 포물선의 꼭지점을 찾아 바로 그 정점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면에서 대입 정원의 양적 감축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대학의 전통적인 구조와 대학교육의 실행기제로서 학사제도의 문제점을 쇠신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국가사회의 요구가 당위적 실천 과제로 합의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구조적으로 교육 중심적이라기보다는 행정·관리 중심적, 소프트웨어·휴먼웨어 중심적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적, 수요자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적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창조변혁의 시대에서는 몸집을 줄이고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별 역량 극대화가 중요하고, 학사제도는 이런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다양한 플랫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 개척

기존의 대학 행정·관리제도는 교수와 학생의 교육활동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일원적 방식이 아닌 다양한 대안의 한 방편으로 존재하거나 대안들의 선택적 가능성을 최소한도로 통제하는 것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이라는 무한지대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조직으로서 대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구성원들이 드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는 얼핏 인적자원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국가사회의 입장에서나 입학자원의 풍요 속에서 호황을 누려온 대학의 입장에서 슬픈 전주곡 혹은 재앙으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우리나라 대학체제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원 감축은 대학의 입장에서 외견적 손실이지만 취약한 교육 조건들을 쇠신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작용들이 순기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일선 대학들과 소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갑작스런 정책 개입을 통해 일거에 대학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고등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재 혹은 미래의 환경 속에서 이해집단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추진의 전 과정에서 방안의 논리적 정연함과 최고선을 추구하는 합리성과 집단 이해의 형평과 만족을 추구하는 정치성의 상호 견제 혹은 균형의 반복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합리성과 정치성의 조화가 중요하다. ㉞

유연한 학사제도로 발 빠른 대응 ① 포스텍 전원 무학과로 신입생 선발, 학과의 장벽을 허물다

1986년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며 개교한 포스텍은 2016년 개교 30주년을 맞이하며 가치창출대학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다. 가치창출대학은 인재가치, 지식가치, 사회·경제적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지혜와 지식을 갖춘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인재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포스텍에서는 2018년 신입생부터 전원 무학과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입학과 동시에 학과가 결정되는, 학과의 장벽이 상상력의 한계가 되는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융복합능력과 유연성은 경험을 통해서 습득

교육의 중요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사회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국가의 명운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21세기는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크고, 선형적인 변화보다는 기하급수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5년 타임지가 표지기사로 보도한 것과 같이 21세기에는

인류의 수명이 140세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되어, 60세에 은퇴하여 여생을 보낸다는 과거의 인생계획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명의 연장으로 현재의 학생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회패러다임의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며, 이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패러다임도 변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혁신인재 양성에 부합하도록 대학 학사제도를 유연화 하고 자율화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지난 20세기 산업화 시



포스텍 공학관 전경

대에 요구되던 인재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기인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였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대체하게 되는 미래에는 융복합능력과 유연성을 가진 인재가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융복합능력과 유연성은 기존의 강의 위주 교육만으로는 함양하기 어려우며,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거치면서 습득할 수밖에 없다.

학과 장벽 없애, 융복합능력 갖춘 인재 양성

1986년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며 개교한 포스텍은 2016년 개교 30주년을 맞이하며 가치창출대학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다. 가치창출대학은 인재가치, 지식가치, 사회·경제적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지혜와 지식을 갖춘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융복합능력과 유연한 사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명확한 판단력이야말로 학생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재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포스텍에서는 2018년 신입생부터 전원 무학과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입학과 동시에 학과가 결정되는, 학과의 장벽이 상상력의 한계가 되는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신입생들은 포스텍에 입학하게 되면 초대총장의 호이자 학문에는 경계가 없다는 뜻을 가진 무은재(無根齋) 학부에 소속되어 2학년 1학기까지 다양한 기초과목과 STC(Science and Technology Core)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2학년 1학기를 마치면 학생들은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하게 되며 4학년 1학기까지 학과선택을 유예할 수 있다. 학과선택에서 특이한 점은 성적과 상관없이 전원 희망하는 학과로 진학하며, 학과를 선택한 후에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타 학과로 자유롭게 전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입생 선발 및 배정 제도는 학생 확보 차원에서 학과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과 스스로 시대에 맞는 전공교과 조정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복수전공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학과별 전공필수 교과목을 줄이고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대폭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하는 등 복수학위 취득요건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지적도전을 장려하고 있다.

강의실 교육 탈피, MOOC 학점제 국내 최초 도입

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강의실 교육과 함께 K-MOOC, EDX, Coursera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지원 및 과목당 1학점, 재학기간 중 통산 4학점까지 인정하는 MOOC(Massive Open



도서관



입학식

Online Course)학점제를 2016학년도 1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면교육을 통한 소수 정예 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평생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미리 디지털 학습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 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스텍에서는 온라인교육 플랫폼인 POSTECHx를 개발하였고,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이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POSTECHx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POSTECHx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과 달리 edx 표준 기반의 대규모 온라인 강의에 적합한 플랫폼으로서 향후 미래교육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텍에서는 교과를 통한 교육만으로는 지혜와 지식을 갖춘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이 재학시절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SES(Summer Experience in Society)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봄학기를 2월 중순에 시작하여 여름방학을 3개월로 늘리는 형태로 학사일정을 조정하였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교과로 지정하는 대신 선택교과로 지정하였지만, 정부출연연구소, 대기업 및 벤처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을 대학과 학과에서 적극적으로

성과와 상관없이 전원 희망하는 학과로 진학하며, 학과를 선택한 후에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타 학과로 자유롭게 전과할 수 있다.

로 발굴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기관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SES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에 교수들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과 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청하고 이를 차년도 프로그램

에 반영하고 있다. SES 프로그램에는 매년 입학정원과 비슷한 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설문조사에서 SES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학기 중 1주일간의 휴지기, 자기주도설계 활동 권장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도 2019년에는 신입생이 대학 진학 후의 재충전과 진로설계,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1학기 중간고사 후 1주일 동안 휴기기를 가지는 '무은재 week'를 도입할 계획이다. 무은재 week 기간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단기 교과뿐만 아니라, 봉사, 국토기행, 여행 등 자기주도설계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학점이나 포스테키안 활동마일리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사제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시행착오와 구성원의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하지만 포스텍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사제도와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우리 대학사회에 전파하는 노력을 부단히 지속할 계획이다. ㉓



**유연한 학사제도로 발 빠른 대응 ㉓ 서경대학교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해 학사개편·교육혁신 단행**

1947년에 문을 연 서경대학교는 지혜와 용기, 어진 품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그동안 국가에 기둥이 되고 사회에 힘이 되는 많은 인재를 배출해 왔다. 그 결과 서경대는 '실용학문의 산실'이자 '소수정예 강소대학'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서경대의 강점은 '실용'과 '혁신'으로 집약된다. 창의적이고 상호 소통하며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CREOS형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세계 속의 미래형 실용교육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서경대 전경

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제비즈니스어학부는 4개의 학과를 통합, 영어, 일어, 중국어, 노어, 불어 등 5개 전공으로 구성하고 영어 전공을 필수로 나머지를 선택전공으로 두어 학부 재학생이라면 최소 2개 국어를 전공하고 졸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실용학문이 각광을 받으면서 2008년 법학과와 행정학과를 통합해 설치한 공공인적자원학과는 학생들의

실용학풍에 기반 교육혁신 모색

서경대학교는 실용학풍에 기반한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시대 학문의 융복합을 위해 선제적으로 학사개편과 교육혁신을 단행했다. 지난 2007년부터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단과대학을 신설했으며 학과를 통폐합했다. 문학, 역사, 철학과 어학을 분리시켜 인문학은 문화콘텐츠학과로 묶어내고 언어는 국제비즈니스어학부로 진화시켰다. 문화콘텐츠학과는 캐릭터, 테마파크, 문화기획 등 새로운 학문 수요에 맞춰 인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는 학제적 교육을 통해 21세기 신성장동력 분야인 문화콘텐츠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변화하는 수험가와 채용시장에서의 현장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면서 최근 일반행정직, 국회직, 법원직 등 각종 직렬에서 놀라운 정도로 합격률이 상승하고 있다. 2008년과 2012년 서울 4년제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신설한 군사학과와 모델학과는 복수전공을 의무화하고 수업과 현장이 연계되도록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가안보를 책임질 육·해·공·해병 정예 장교와 장기용, 권현빈, 한승수, 김기범 등과 같은 스타들을 대거 길러내면서 이른바 스타학과

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4년 전에 개설한 실용음악학과는 한류, K-POP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실무현장을 학교에 그대로 재현하여 전공 역량과 현장 경험을 함께 쌓도록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2019학년도 수시 경쟁률이 621대 1로 전국 최고를 기록할 만큼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자동차를 달리게 하며 인간을 대신하는 소프트웨어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올해 컴퓨터과학과에서 문패를 바꾸고 최신 기술개발 동향에 맞춰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학과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응용, 모바일 컴퓨팅 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유망학과로 떠올랐다. 또, 2007년 회계학과에서 전환한 경영학부는 경영·국제통상·회계세무·금융경제·물류마케팅 등 5개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미국 SNHU(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와 공동학위과정을 운영, 2010년대 들어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들을 다수 배출하면서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학과 간 협업과 탈경계 수업 시도

융복합 인재에 대한 사회 수요와 시대 요구가 높아지면서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나노융합공학과는 매 학기 기업체의 요구와 연구개발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바꾸고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강의 등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2017년부터 학부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국제 과제와 대기업 과제에 학생 연구원으로 참여,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을 정도로 맨파워가 강하다. 2007년에 신설된 금융정보공학과도 문과와 이과 졸업생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수학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경영·회계원리 등을 결합하여 투자·금융상품·위험관리·재무관리 등의 실용학문을 포괄적으로 학습하도록 교과과정을 혁신해 2012년 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많은 졸업생들이 은행, 증권, 보험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과 기관에 취업해 평균 70%가 넘는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예술대학과 미용예술대학 9개 학과의 학과 간 협업과 ‘탈경계’ 수업도 서경대만의 독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무에 탁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술분야 학과는 국내 최초로 실무현장과 동일한 프로덕션 시스템을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통합형 공연예술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HUB)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현장형 프로덕션 시스템은 공연을 하거나 무대를 만들 때 연기·음악·무대·의상·분장·영상 등 분야별 학과 또는 전공들이 학기 내내 함께 공연 및 제작에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이다. 또, 통합형 공연에



군사학과



실용음악학과 스튜디오



뮤지컬학과



실용음악학과 연습실



모델연기전공



미용예술대학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미래형 학교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플랜에는 서경대가 지향하는 미래형 실용교육 중심 대학의 특성화 모델 개발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경대 발전방향이 담겨 있다.

술 창의인재란 다양한 공연 프로덕션을 경험한 인재 1인이 멀티플레이어화 되어 자기 전공을 넘어 다른 전공의 업무를 이해하고 콘텐츠를 생산해 내며 취업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HUB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공연 창작물, 인재 콘텐츠는 공연예술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좋은 조건이자 역량이며 이를 대학 문을 나서기 전에 미리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크나 큰 메리트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미용 관련 학과를 학사·석사·박사 과정으로 운영하고 단과대학 규모로는 세계 최초로 신설된 미용예술대학은 다양한 산학협력 체제를 도입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K-Beauty 프로그램 등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매년 수시, 정시 모집에서 전국 최상위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래형 학교발전 모델 개발

서경대는 교육을 혁신하고 대학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미래형 학교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플랜에는 서경대가 지향하는 미래형 실용교육 중심 대학의 특성화 모델 개발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경대 발전방향이 담겨 있다. 종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 370개를 운영하고 교양수업을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재편했다. 문제해결·대인관계·글로벌·자기계발·실무 등 6대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양성 및 관련 인증제를 시행하고 교육과정의 혁신과 국제 표준화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정 인증제를 통해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도모하고, 교과목 인증을 통해 개설되는 교과목의 수준과 사회적합성, 질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경대학의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국제 표준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수업방식을 혁신하는 일에도 서경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수업 및 강의 혁신을 위해 강의품질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플립러닝, 협업수업 등 새로운 수업방법을 도입했다. 교육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양, 전공, 비교과, 캠프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핵심역량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와 혁신의 성과는 여러 지표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3월 교육부가 실시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서 지난해 2월 실시한 교육부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는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도 경쟁률이 23.21대 1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도 10월 현재 515명으로 서울지역 1위(재학생 5천명 이상 7천명 이하 대학)를 기록하고 있다. ㉔

이같은 변화와 혁신의 성과는 여러 지표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3월 교육부가 실시한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서 지난해 2월 실시한 교육부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는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도 경쟁률이 23.21대 1로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수도 10월 현재 515명으로 서울지역 1위(재학생 5천명 이상 7천명 이하 대학)를 기록하고 있다. ㉔

대학(원)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 추진 방향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이 제정·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고등교육법」이 처음 제정·시행된 이후 총 39차례 개정되었고, 법률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총 59차례 있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의 목적과 이유는 다양했지만, 대학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렇듯 그동안 정부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에 따라 대학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여전히 대학의 학사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이 여전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대학 스스로 능동적으로 고등교육 환경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진전된 규제 혁신과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학 현장에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그간의 분절적 학사운영을 탈피하고, 국제적 호환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예컨대, 대학이 학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과 관련된 융합 전공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학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방안’은 그동안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와 필요성에 부응하여 대학(원) 학사제도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학에 그 권한

과 책임을 주자는 것이다.

학사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보면, ① 학사제도 유연화 ②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③ 시공간 제약 없는 수업 제공 ④ 국내 대학의 국외 진출 발판 마련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사항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대학의 다양성 보장과 제도적 명료화 및 개선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1. 학사제도 유연화

학사제도 유연화에 관한 내용은 학사제도가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① 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학사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③ 학위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해 보았다.

먼저, <학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그간 대학의 학기제는 2-4학기제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규 2학기여름, 겨울 계절수업이 추가된 형태로 학기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적인 학사 운영으로는 최근 고등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대학 또는 융복합교육 등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학기제 운영을 위해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림 1]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다학기제는 현행 2-4학기 규정을 대학 자원으로 위임하여 다양한 학기제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5학기 이상 운영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리엔테이션 학기, 실습학기 등을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수업을 정식학기로 인정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도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유연학기제는 학생의 입학 후 원활한 학교 적응, 효과적인 전공 교육과정 구성, 졸업 준비의 편의성 보장 등을 위해 학년별, 전공별, 그리고 학위과정별로 다른 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과정은 각 학년별, 전공별로 강조해야 할 부분들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학년들에게는 심화된 형태의 교육보다는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4학년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현장 실습 기회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연학기제인 것이다(그림 2 참조).

다학기제 도입 시 학사운영의 유연성 강화로 인해, 혹여 원칙 없는 방만한 학사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학사 운영기준 명료화에

관한 내용들이다.

우선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소 30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과정을 제공하여야 하고(수업일수), 교수는 담당하는 교과목 운영 시 학점당 최소 15시간 이상을 수업하여야 하며(교수시간), 학생은 학칙으로 정해진 출석기준을 준수(출석시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학사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규제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위의 질 보장이나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이수제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고등교육법상 수업일수에 관한 규정은 일률적으로 30주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던 것에 대해, 개정된 법령에서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목의 수업일수를 구분하되, 학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 결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블록수업, 집중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운영으로 산업체 재직자, 체육특기자 학생 등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학위취득>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다. 먼저, 학·석사 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요가 가능했던 것을, 통합 과정이 진행 중

[그림 2] 유연학기제(예시)

학년	학기			
1학년	1학기 오리엔테이션 진로탐색세션	2학기	3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실습학기)	3학기	
3학년	1학기 (학점교류 집중학기)	2학기 (실습학기)	3학기	
4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현장실습 등)

인 경우라도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에 한해서만 적용되던 졸업요건 자율화가 석사과정 전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다양한 학습기회 보장 역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요한 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융합전공의 도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공의 개설이 필요하다. 특히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창의적 사고력, 융복합 사고력 등으로 정의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단일의 전공만이 아닌 융합, 연계전공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간 우리 대학의 전공 개설과 각 전공별 학생 충원 과정은 상당히 경직되어 이루어져 왔다. 가령,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전과 또는 편입이라는 제도적 허들을 넘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융합전공은 이러한 제약을 없애는 대신 대학이 보다 자유로운 여건에서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융·복합 전공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전과 등 부담 없이 원하는 경우 새로운 융합전공만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융복합전공 개설 등 교류가 가능한 범위를 개별 대학 내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외 복

수의 대학 간에도 가능하게 열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학 간 인적, 물적 자원 및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유대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이다. 2012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및 「대학운영 자율화 조치에 따른 제도 운영 요령」 시행 이후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동학위 수여는 가능해졌으나, 대학 서열화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는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융합전공, 공유대학 등 다학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쪽으로 교육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내 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를 통해 대학 간 교류, 협력으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주는 한편, 대학의 입장에서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창출해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경험 인정제>의 확대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학습경험 인정제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으나, 이는 쉽게 말해 대학이 아닌 공간에서의 다양한 학습 경험들, 예를 들면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의 재직 경력 등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대학이 고등교육과 학습이 이뤄지는 유일한 주체가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학습경험 인정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학습경험 인정제를 통해 학점 인정을 할 수 있는 대학의 종류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에 학습경험 인정제 도입 당시(2013년)에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에 한정되었던 것을 이제는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적용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는 학습경험의 범위를 더 이상 국내에서의 경험으로 국한하지 않고 국외에서의 경험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나아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쩌면 학습경험 인정제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학습경험과 대학의 교육과정 간에 관련성 인정 여부를 대학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대학이 충분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고 사회에서의 다양한 학습경험에 대해 해당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하였다.

학사제도 개선사항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대학의 다양성 보장과 제도적 명료화 및 개선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3. 시공간 제약 없는 수업 제공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대학 수업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교사 및 교지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성인 학습자 및 특수직역 종사자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 수업 방식에서 탈피한 변형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양태는 원격강의의 활성화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먼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원격수업 활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그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어 강의실 수업과 원격수업 간에 학습의 등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여러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여, 그 운영기준을 제정하고자 한다. 가령, 원격수업 시 제공되는 콘텐츠의 분량, 원격수업 활용 비중 등 수업 운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학교 밖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대학생 현장실습,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학과 등 특정 분야의 교육 목적상 필요에 의해 일부 활용되어 있었다.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직역 등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학습자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간적 제약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이른바 <이동수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의 수업은 학습장으로서 요건을 갖춘 인가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2017년 진천 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체육대학교의 이동수업을 승인한 바

있다. 향후에도 이동수업의 운영으로 군인이나 교사와 같이 특수 직역의 근무자들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마련

대내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 국내 대학 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한 학생 모집의 어려움이라는 위기 요인으로 인해 국내 대학은 새로운 학생수요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교육 한류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국내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학생의 입장에서는 국내 대학 방문 수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국내 대학의 입장에서는 해외분교, 캠퍼스 등 물리적 기반 구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해외진출이 활발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 도입된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방식의 도입>이다.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진출이란,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하였으며, 향후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진출이 가능한 교육과정의 내용, 수업방식 등 구체적 운영에 관한 교육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나가며

이번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계기로 우리 대학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우수 사례를 많이 창출하여 상호 학습을 통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사회 문제를 ‘발견-해결’하는 미래형 인재 키우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대학교육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밀려오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 교육은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지식을 강의실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서 집체교육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대량생산이라는 산업사회에서의 방식처럼 인재들을 배출해 왔지만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환경에서의 변화 없이는 사회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는 대학으로 전락할 것이다.

대학혁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사제도 개선

교육부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학사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대학 자체적으로 학사구조 및 제도를 개편하기도 했지만 정부재정지원사업 내에서 학사구조 및 제도 개편 반영을 통해 대학의 변화를 유도한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ACE사업('10-'17), ACE+사업('17-'21)과 PRIME사업('16-'18) 등이 있다.

ACE사업은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 교수-학습 역량 향상, 교육환경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여 대학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PRIME사업은 단과대학 간 정원교환, 새로운 학과신설, 학문 간 융복합 등의 학사구조개편과 유동적 정원제, 자유학부제, 다전공 활성화 등 학사제도 개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무학과 교육과정, 융합 부전공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학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와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해외 대학에서는 어떤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의 역량 간의 차이를 최소화 시키는지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소위 4C 능력(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Creativity 창의력, Communication 의사소통, Collaboration 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사회문제 찾고 해결하는 4C능력 키운다

4C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해외의 많은 대학에서 교수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인 PBL(Problem-Based Learning)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올린공대의 경우는 융합전공제를 통해 기존 대학에서의 공대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으로 2006년에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신생 대학이지만 공학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이다. 이 대학은 전체 학생이 350명 정도이고, 전자컴퓨터공학(ECE,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기계공학(ME, Mechanical Engineering)과 학생들 스스로 학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공학(Engineering) 등 세 개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학의 학생대비 교수비율은 9대1이고, 기존 대학의 학과가 없고, 교수들에게는 정년보장을 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올린공대의 학사제도가 융합교육을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올린공대는 소규모 대학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목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올린공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영분야에 특화된 뱀스칼리지와 인문분야가 강한 웰슬리칼리지가 서로 보완을 하면서 상호 학점을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과대학 규모의 세 개의 칼리지이지만 하나의 가상 대학(virtual university)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올린공대는 통상적인 학사제도와는 다르게 졸업 시까지 최소 여섯 학기 이상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자기



한양대 ERICA캠퍼스 IC-PBL 교육

학습(Olin Self-Study)과 4학년 때 수행하는 SCOPE(Senior Capstone Program in Engineering)는 산업체로부터 팀별로 5만 불의 지원을 받아 산업체의 문제를 실제로 수행을 하도록 하고 프로젝트기반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976년에 설립된 마스트리히트대학은 네덜란드 대학 중 처음으로 PBL교육을 시작하였고, 모든 전공에서 PBL교육을 적용하고 있다. PBL교육을 통해 학생의 과학적 사고능력 및 지식의 확장, 비판적 지식창출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대학은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PBL 수업 진행을 위한 유연학기제 및 집중이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PBL 수업은 두 개 학기로 운영되며, 학기별 2개 Period(총 16주)와 프로젝트 Period(4주)로 진행되는 한 학기가 총 20주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관련,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시스템 도입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도 2016년부터 모든 전공에서 PBL교육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양 및 전공 교과목 내에서 해당 과목과 연계된 산업체(기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IC-PBL(Industry-Coupled Problem-Based Learning)으로 명명된 새로운 교육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모든 전공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이공계열의 관점에서 언급된 산(産)은 기존의 산업체(産業體)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社會,

society)를 産으로 인식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IC-PBL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 교수 숫자도 늘어나서 2년 만에 140개 전공 교과목에서 IC-PBL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IC-PBL을 적용할 때 교수가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 시나리오 작성과 학생 평가 등 IC-PBL관련 모든 자료 등이 IC-PBL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현재 75개 대학에서 자료 검색을 하고 있는 등 교육혁신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방법 혁신 측면에서 핀란드 올루 대학은 산업체 및 지역연계 문제 해결 프로젝트인 DEMOLA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단순히 기업체로부터 주제를 받아서 수행하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니고 학생-기업-대학이 동등한 주체로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공동창조(Co-creation) 하는 것이다. DEMOLA 프로젝트는 전 세계 다양한 대학, 기업, R&D Lab 등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IP)를 기업뿐만 아니라 학생이 직접 가져가서 창업에 활용할 수도 있는 등 학생중심의 산학협력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를 불구하고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목표 및 특성에 맞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통해 사회에 힘이 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진정성과 지속가능하게 프로그램이 유지되기 위한 방안을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교육 주체들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27

해외의 교육시스템이 '진화'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출현과 더불어 사회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실시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현실화되고 있고, 의학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닥터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학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캠퍼스 중심의 기존 대학교육'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미래 교육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과 프랑스 IT 전문 교육기관인 에콜 42(École 42)를 들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미네르바 스쿨



미네르바 스쿨은 2015년에 개교한 신생 대학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다. '하버드 대학 보다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으로 알려짐으로써 단 기간에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고 있고, 최근 입학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섰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미네르바 스쿨에서 이루어지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 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수진에 의해서 최고의 강의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7개국(미국, 영국,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 대만, 한국)에서 경험하는 기숙사 생활은 글로벌 체험을 원하는 요즘 청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매력적인 옵션이다. 각 국에서 학생들은 문화 체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 비영리단체, 사회혁신기관 등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모든 수업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소규모 세미나로 이루어지는 대신에,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촉진하기 위해 13~15명의 학생들이 실시간 토론을 하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상호 토론을 하고, 교수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교육 외에도 미네르바 스쿨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은 저렴한 등록금이다. 2018/19학년도 학부생 기준으로 미네르바 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24,950로, 미국 명문 사립대학(하버드, 스탠포드 등) 대비 1/4 정도에 불과하다. 캠퍼스 유지 및 보수비용이 들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업, 학사행정 및 학생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졸업 후 다년간 고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미네르바 대학은 거부하기 어려운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IT 인재의 산실 '에콜 42'

또 다른 대학교육의 혁신 아이콘이 된 '에콜 42(École 42)'는 3無(강사, 교재, 학비)인 교육기관으로서 유명하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에콜 42는 2013년 이동통신사를 경영하는 자비에 니엘(Xavier Niel) 회장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IT 인재 육성 시스템을 혁신하기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에콜 42는 2017년 IT 기술대학 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고, 졸업



생들이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대학교육 혁신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로 확산되고 있다. 에콜 42는 IT 기본교육을 이수한 18~30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영장(La piscine)'이라고 불리는 선발 과정은 그 자체가 에콜 42 교육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에콜 42의 입학생으로 최종 선발되기 위해서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데, 1차는 '논리와 추론 능력 테스트'로, 이를 통해 3배수의 학생이 걸러진다. 2차는 4주 과정으로, 입학자들은 매일 주어지는 프로젝트를 코딩(coding)을 통해 풀어야 한다. 컴퓨터가 가득한 방에서 학생들은 먹고 자며 문제를 풀고, 그에 따라 수영장처럼 수건이 널려져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의 난이도는 높아지며 동료끼리의 협업과 상호평가를 통해 솔루션을 찾아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현실에 적응하는 역량을 키워간다. 수영장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약 1,000명의 학생은 3년의 본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본 과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①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 ② 게임을 통한 학습 ③ 수준별 자율학습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육성된 인재는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더불어 급속히 진화하는 IT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게 된다.

파괴적 혁신은 대학 생존의 필수 과제

이와 같은 혁신 사례들이 국내 대학교육에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캠퍼스, 교수, 교재 중심'의 전통적인 대학교육 모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다수의 학생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고 수업하는 대중교육 모델은 외면받기 쉽다. 구글(Google)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글로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을 독점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수의 역할도 '지식전달자'가 아니라, '학습 촉진자'로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학생별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운영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플랫폼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 학습을 진행해나갈 수 있는 유연한 학습지원 시스템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혁신은 단순히 최첨단의 인공지능시스템 도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에 대한 기본 발상이 달라져야 한다. '대학 중심, 교수 중심'의 고전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대학교육의 전 과정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위 '파괴적 혁신'은 오늘날 대학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②

참고 자료

Minerva School 홈페이지. <https://www.minerva.kgi.edu>
중앙일보(2018.01.12). 하버드보다 입학 어려운 新대학 미네르바 스쿨 가보니.

École 42 홈페이지. <http://www.42.fr>
미디어 바벨탑(2017.11.17). <https://media.babeltop.net>

경남 행복학교 '봉명중학교' 교사의 기다림과 믿음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봉명중학교(교장 윤혜경)는 경남 행복학교 1기로, 2015년 행복학교로 지정된 이래 꾸준히 '배움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우리'를 목표로 교육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결성된 '수업동아리'였다. 이후 학교·학년 교육과정연구회를 운영하고 전 학년 학생 중심의 배움 공동체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모두가 깨어있는 교실, 단 한명도 소외되지 않는 배움으로 가득 찬 교실을 만들어 오고 있다.



1

- 1. 2. 폐목자재를 이용해 목공작업을 하는 아이들. 폐목자재로 만든 탁자와 의자 등은 학교 심터에 놓일 예정이다.
- 3. 댄스동아리



경남 행복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과 협력이 있는 미래형 학교 모델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자기 효능감과 보람을 얻고, 학생은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부모는 학교와 소통하는 등 행복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고 학교의 참모습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교육(민주성),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미래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 모두를 혁신한 창의적인 교육(공공성),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교육(지역성)을 기본철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수학여행 보셨나요?”

지난 7월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날, 봉명중학교 강당에서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2학년 학생들의 결과 발표가 있었다.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의 결과를 듣기 위해 경남지역의 중·고교 교사 100여 명도 모였다.

봉명중은 4월부터 7월까지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학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여행지 선택에서부터 사전 준비, 계획을 세워 '서울과 만나는 공정여행'을 테마로 역사, 진로, 경제, 인물, 공간 등 주제별로 소규모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던 터이다. 이날 발표는 3개월간 진행한 수학여행 프로젝트와 서울나들이를 통해 얻은 '배움의 가치'를 공유하는 순간이었다.

송순호(행복교육부장) 교사는 “안전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수학여행 프로젝트를 위해 선생님들이 우리가 먼저 가보자고 뜻을 모아 1박2일 동안 사전답사를 다녀왔다.”며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아이들에게 줄 수 없었기에 서울 4대문 안을 함께 다녀보고 또 각자 여행했다. 길을 잃었던 경험이나 혼자 밥을 먹으며 두려웠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때의 경험을 담아 국어선생님이 서울여행 답사기를 썼고 그 자료는 수학여행 프로젝트의 첫 단추가 되었다.

안전하면서도 각자에게 의미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수학여행 프로젝트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주제별로, 교과별로 촘촘하게 맞물려 기획되었다. 올해 수학여행 프로젝트는 '서울과 만나는 공정여행'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해 민주주의 창, 사회적 경제(공유경제), 환경, 탈핵, 마을 공동체, 공간과 삶, 도시재생, 서울의 길, 전통 시장, 4차 산업, 건축, 예술, 인물, 박물관, 진로, 여가 등이 주제로 정했다.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1~5명 이내로 모둠을 꾸려 총 54개팀을 구성했고 각자 맡은 주제별로 자료집을 만드는가 하면, 지도를 이용해 여행 동선을 짜고 항공편 예약 등 숙소를 제외한 여행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주도했다. 수학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긴장과 설렘을 유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낮선 여행지에서 우린 아는 만큼 보게 된다. 때문에 수학 여행의 참 의미를 되살려 여행의 의미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을 보완하였다. 국어과에서는 모둠별로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모은 자료집을 만들고 수업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영어과에서는 학생들이 머물게 될 게스트하우스의 숙소예절이나 공항 이용 시 사용하는 표현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영어를 익히고 도덕과에서는 공정여행이 무엇인지, 실천하는 방법 등을 지도하는 식이다.

친구와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로도 수학여행은 즐겁지만, 스스로 기획한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은 재미와 삶이 두 배가 된다. ‘서울의 아픈 역사’를 주제로 서대문형무소, 탑골공원, 경복궁을 다녀온 학생들은 일제강점기 서울의 모습을 찾아 여행하였다.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돼 고문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서대문형무소는 학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경제를 택한 모듬은 성미산 작은나무 카페, 효자 베이커리, 서촌 피자집, 착한 커피공장을 견학하며 공유경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내 고장 ‘김해’ 알아가는 재미가 솔솔

봉명중학교 교사들이 혁신교육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

장 많이 한 고민은 ‘학생들의 배움’이었다. 때문에 교사의 역량과 수업디자인은 항상 화두였다.

홍현화 교사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의 열정을 늘 배우려고 한다.”며 “매일 학습지를 만들고 수업디자인을 고민하면서 텍스트를 통해서 삶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고안하고 있으며, 그것을 프로젝트에 담아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고민에서 탄생한 것이 다양한 학년별 프로젝트이다. 대표적인 것이 수학여행 프로젝트, 김해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김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김해에서 역사, 문화, 생태 등 다양한 지역체험을 하게 하자는 취지로 매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해 주제 여행코스 만들기-김해는 처음이지?’(1학년), ‘김해와 만나는 행복한 나눔 프로젝트’(2학년), ‘봉하마을과 화포천에서 찾은 미래지속 가능한 삶’(3학년)을 주제로 다양한 김해를 체험할 수 있었다.

1학년은 김해시 관광지도, 회현동 골목자료, 인터넷 자료들을 총망라하여 ‘레저 체험’, ‘해반천 따라 자전거 여행’, ‘가야가 궁금해’, ‘별을 보는 밤’, ‘가야의 거리’, ‘김해 예술 탐방’, ‘회현동의 반전 매력’, ‘경전철 타고 김해유적관광’ 등 모듬별로 코스를 짜고 계획을 세워 38개 여행을 떠났다. 2학년은 ‘행복한 나눔 프로젝트’로 김해 시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



4. 학생들의 벽화 작품 5.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하고 있는 봉명중학교 2학년 학생들. 한복입고 외국인과 사진 찍기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6. 진로직업체험 프로젝트 활동 7. 난타동아리

는 프로젝트다. ‘해반천 정화’, ‘탈핵 서명 받기’, ‘벽화 그리기’, ‘김해 인물 알리기’, ‘유치원 교육봉사’, ‘공원 나무에 이름표 걸기’ 등 40개나 된다. 하루 종일 김해 시내를 골고루 돌아다닌 1, 2학년 학생들은 박람회 형식으로 ‘김해 프로젝트’를 발표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전재민 학생은 “우리 모듬은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김해의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를 했다. 사람이 소비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등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소중한 경험이였다.”고 말한다.

오는 11월에는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로 프로젝트(1학년), 김해와 만나는 행복한 나눔 프로젝트(2학년), 봉하마을과 화포천 프로젝트(3학년)를 진행할 계획이다. 3학년은 마을의 자원인 봉하마을의 자연생태와 친환경 농업, 그리고 대통령 사저에 담긴 건축가의 철학 이해, 봉하마을 속 민주주의 실천 사례와 화천포의 습지생태계를 알아볼 계획이다.

너, 나, 우리가 함께 만드는 ‘봉명중학교’

가르치는 것에서 자기 효능감과 보람을 느낀다는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과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만큼은 뒤지지 않는다는 학생들이다.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교육은 학생들

에게서 더 잘 드러난다. 학년별로 이뤄지는 프로젝트 수업은 그 연속선에 놓여있다.

또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기 위해 전교생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 등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지금의 봉명중을 만든 일등 공신이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전진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 큰 힘이 된다. 프로젝트의 가이드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예전에는 교육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답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질문으로 되돌려준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기다려준다. 수많은 질문 속에서 아이들은 방향을 찾고 답을 찾아나간다. 물론 실패도 많이 하지만 경험 속에서 선생님들도 함께 성장한다.” 봉명중학교의 혁신모델을 만들어온 송순호 교사의 설명이다.

채용기(교무부장) 교사는 “올해 봉명중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사들의 열정이었다.”며 “120% 역량을 뺏어내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아이들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선생님의 삶의 발자취는 아이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있다. 2



표. 봉명중학교 학년별 프로젝트 주제(2018)

학년비전	학기	주제	프로젝트 내용
1학년	1학기	관계 공동체	• 관계 맺기, 소통하기, 공동체 문화 만들기(3~4월) • 텃밭 프로젝트(3월~12월) • 봄 프로젝트(3~4월) • 감사 프로젝트(5월) • 생활규정 프로젝트(6월) • 작은 발표회(7월)
	2학기	진로	• 진로직업체험 프로젝트 • 학생자치선거 프로젝트(11월)
2학년	1학기	관계 수학여행	• 수학여행 프로젝트(서울과 만나는 공정여행)(4월~5월) • 작은 발표회(7월)
	2학기	지역 학생자치선거	• 김해와 만나는 행복한 나눔 프로젝트(9~11월) • 어울림한마당(10월) • 학생자치선거 프로젝트(11월)
3학년	1학기	만남 진로	• 봄 프로젝트(3~4월) • 진로캠프 프로젝트(5월) • 감사 프로젝트(5월) • 생활규정 프로젝트(6월) • 작은 발표회(7월)
	2학기	지역 졸업	• 봉하마을과 화포천 프로젝트(9~12월) • 졸업 프로젝트(12월~2월)

탁동철 강원 상평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의 삶이 교육이 됩니다”

누구든지 본 대로 들은 대로 쓰는 <교실일기>. 한 아이가 이렇게 적어 놓았다. ‘벚꽃나무에 (예쁜) 봉아리가 나왔어요. 골목길에’ 교사는 칭찬을 한 이, 칭찬을 받은 이 모두에게 선행의 한 표를 주자고 했다. 아이 1표, 벚나무 1표. 그렇게 <교실일기>를 살펴보며 선행을 이야기한 날, 창문에 놓여 있는 배추꽃, 우리에게 키우던 닭 등등 아이들의 주변은 칭찬으로 넘쳐났다. 교육은 이렇듯 아이들의 삶과 가까이 있다. 아이들과 함께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야기거리로 ‘공부’해 나가는 탁동철 상평초등학교 선생님의 교실을 엿보려 한계령을 넘었다.



1. 환하게 웃는 상평초 4학년 담임반 아이들과 탁동철 교사
2.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탁 교사

“오늘 보거나 듣거나 마음에 담은 일이 있나요. 한 줄로 적어 볼까요?”

한 교실에 웅기종기 모인 8명의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과 최대한 가까이 책걸상을 두고 앉은 어른 1명.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보고 앉아 있는 이들 책상 위로는 ‘노래공책’이 펼쳐져 있다. 매일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혹은 시간이 될 때마다 부른 탓인지 공책은 이미 두 권을 붙여 두툼해져 있었다.

“다 괜찮아요?”

“뭘든 괜찮아.”

‘모두’ 허용되는 공간 안에서 아이들은 하나둘 입을 열었다. “추석 때 별집을 봤어요.” “무슨 별집?” “집에 붙어 있었어요. 이~만해요!” 저요, 저요를 여러 번 외치던 지우를 시작으로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진다. “재진이 책상 위 종이딱지”(유민이) “전봇대 위에 까마귀가 까악까악”(예성이) “비만 고양이네 내 눈앞에서 어슬렁어슬렁”(민성이)…….

아이들이 본 세상, 아이들의 일상이 그대로 묻어나는 한 줄의 글. 곧이어 한 줄 글에 마음대로 음을 붙이더니, 제법 신나게 흥얼거리는 아이들. 노래를 부르는 사이 시간은 정오를 향해 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이야기로 부르는 노래

어느 때와 다르지 않은 9월의 어느 날, 강원도 한 시골 마을 교사의 수업을 엿봤다. 4학년이 8명인 아이들, 그 속에 함께 앉아 노래를 부르는 이가 탁동철(50) 양양 상평초등학교 교사다. 10월 12일 열리는 상평초 풀벌레 예술제에 부를 노래를 연습하는 날, 아이들은 이 곡에도 자신들이 쓴 시에 음을 붙여 노래를 만들었다.

엄청나다 북평리 논밭 / 모가 삐죽 자라는 논밭

도롱뇽 새끼가 있고 … (중략) … 자연의 세계 / ♪ ♪

이제 막 자라는 모가 / 너도 여기 오라고 혼들 혼들 ♪ ♪

유민이가 쓴 「북평리 논밭」에는 등하곶길에 바라본 논밭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도롱뇽 새끼, 하얀 백로, 울챙이와 소금쟁이가 있는 자연의 세계가 유민이가 바라본 고향의 논밭이다.

“학교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나가는 곳입니다. ‘무엇을 해라’고 하는 건 자기를 이야기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다 이야기하게 하는 것. 교실은 아이마다 실의 한끝을 쥐고 자기 이야기 그물을 짜나가는 곳이지요.”

탁 교사의 수업은 언제나 정해져 있지 않다.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그날그날의 이야기가 수업이 되고 공부가 된다. 점심을 먹고 난 이후 아이들은 종이 한 뭉치를 들고 교문 밖을 나섰다. 전교생이 정성스럽게 그린 ‘폴벌레 예술제’ 홍보지를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소개하기가 이날 5교시 수업. 서면파출소 경찰관 아저씨도, 수성우체국 우체부 아저씨도, 서면슈퍼 아주머니에게도 “노래 들으러 꼭 오세요!”라고 외치는 아이들 얼굴에는 뿌듯함이 배어난다.

산개 포획 작전이 수업 속으로

올여름에는 아이들에게 ‘대사건’이 일어났다. 동네 ‘누렁이’보다 더 큰 산개가 학교 뒷산에서 내려와 어슬렁거리는 걸 목격한 것. 학교는 흑여 아이들이 다칠까 우려했고, 아이들 눈은 온통 산으로 향했다. 탁 교사는 아이들의 화두를 교실 안으로 들여왔다. 그렇게 한 달간 아이들과 산개 구조를 위한 포획 작전을 짰고, “함정을 파자”는 의견에 따라 땀을 흘려가며 인근에 구덩이를 팠다. 탁 교사는 이러한 모든 활동을 교과서 활동과 연계했다. 구덩이를 파며 1분



3

3. 교직생활 동안 꾸준히 만들어 온 학급신문 4. 아이들의 이야기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수업 5.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학급 게시판



4



5

동안 아이들이 삽질한 숫자를 기록하고, 그렇게 판 흙을 자루에 담아 저울로 재서 그래프를 그렸다. 함정을 팔 때는 지난 국어 시간에 시로 만든 노래를 부르며 땅을 팠다. 아이들이 쓴 「산개」란 시다.

산개가 타닥타닥 / 학교를 내려다본다. / 우우웅 활활

나도 산을 보며 개처럼 짚는다 / 우우웅 활활

개 / 무서운 개 / 치타 같이 뛰는 개

잡아야 된다 / 함정을 파자 / 영차 영차

“난데없이 나가서 꽃을 보고, 물놀이하고... 그런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박물관에 자주 간다고 아이들이 배우나요? 산개 포획 작전도 아이들이 하고자 한 일이라 의욕이 강했어요. 아이들이 TV ‘동물농장’에 사건을 제보한다며 편지글을 쓰는데, 3~4일에 걸쳐 한참을 공들여 설득하는 글을 쓰더군요. 국어 단원 ‘편지쓰기’ 수업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교과서에 갇히지 않고, 일상 속에서 참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해요. 지식을 외우는 건 열심히 할 순 있지만 마음까지 움직이진 않거든요. 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는 있는 힘을 다하게 되지요.”

삶을 가꾸는 글쓰기로 다가서다

탁 교사도 이곳 출신이다. 상평초등학교 분교 공수부전은 그의 근무지였고, 모교이기도 하다.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선생님이로 보던 그는 다시 모교로 돌아와 이번엔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후 20여 년 동안 그는 전교생이



6



7

6. 산개 포획 작전으로 함정을 판 4학년 아이들 7. 학교 축제 안내문을 마을주민에게 나눠주는 아이들 8. 아이들이 만든 학교 축제 안내문

100여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주로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 복식학급을 지도한 경험이 전 교직생활을 통틀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굳이 작은 학교를 희망해 근무한 이유는 뭘까.

“여기서는 누가에게 어떤 일이 있든 모두의 일이 됩니다. 쉬는 시간 딱지로 다툼이 생기면, 다음 주에 바로 전체 회의가 열리고 아이들이 한참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끈으로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야기들이 끝이 없지요. 다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풀어나가야 하니 공부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학교에 오는 일이 힘들어 본 적이 없다는 그도 후회의 순간은 있다. 초임교사 시절, 3여 년간은 정답을 찾고 점수에 목매는 경직된 학교 분위기에 순응해야 했다. 교실에서 공기놀이를 해도 지적받던 시절이었다. 그런 그에게 인근 학교 선배 교사가 글쓰기 모임을 권했고, 그는 그때부터 새롭게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쓴 글을 교사들과 함께 나눠 읽고 되새기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

그 후로, 매일 매일 아이들과 함께 교실 안에서 일어난 일을 적는 <교실일기>를 쓰고, 학급신문과 문집을 지금껏 꾸준

히 만들어 오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쓴 시를 모아 시집 「까만 손」을 엮었고, 아이들과 시 공부를 하며 놀았던 이야기를 모아 『예들아, 모여라 동시가 왔다』도 펴냈다.

“공수전분교에서 만난 성준이(가명)는 조부모와 지냈어요. 늘 울었지요.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커서 사람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루 종일 책상 밑에 숨어 들어가 안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시 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지금은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들 상담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시와 노래로 치료를 하겠다고 하지요.”

지난해부터는 <학교종이 땡땡땡> 팟캐스트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국 선생님들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교육 현장의 어려운 일들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시작했다. 삶을 가꾸는 글쓰기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탁샘, 그는 아이들을 찾아주고 인정해 줄 때 아이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듯, 교육은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



8

한경화 교사의 국어과 수업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한눈에 읽는다

충남 천안동성중학교(교장 서한석) 한경화 수석교사의 국어수업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다양한 역할분담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수업 디자인을 구상하는 한경화 교사. '평가=수업'인 한 교사의 수업에는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이 늘 그 중심에 서있다. 자유학기가 한창이 1학년들과의 특별한 국어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자.



즐거움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충남 천안동성중학교 1학년 5반 교실, 소설의 갈등과 해결과정을 다룬 한경화 교사의 국어수업이 한창이다.

소설 속 갈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미 갈등 년 누구니(1차시), 교과서 '하늘은 맑건만'을 읽고 질문 만들기(2차시), 영화 완득이 관람 후 소감 나누기(3차시), 교과서 '하늘은 맑건만' 사건의 흐름 속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4차시), 소설의 내용 이해, 갈등 과정 파악하며 연극 대본쓰기(5차시)를 마친 상태다. 오늘은 모둠별로 완성한 대본을 토대로 연극에 도전한다. 일명 '레디~ 액션!', 다음 차시에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가져와 갈등을 구체적으로 파악(7차시)하고, 갈등 해소 레시피 만들기(8차시)와 소단원 활동 평가(9차시)으로 수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성중, 1학년 5반 학생들이 꿈꾸는 '하늘은 맑건만'

지난 차시에서 모둠원들과 토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대본을 완성해가는 즐거움을 느꼈다면 이번 차시에서는 신나게 놀면서 연극을 즐기는 시간이다. 모두가 주인공인 연극 무대에서 학생들의 설렘이 느껴진다.

이날 수업은 다섯 모둠의 연극 리허설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리허설 전에 한경화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극을 하는 목적을 물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요", "갈등의 진행과정과 해결과정을 파악하라고요", "등장인물의 마음을 느껴보라고요." 모범 답안들이 학생들의 입에서 속속 튀어나왔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시간인데 오늘 연극을 해보면서 배우, 소품, 시나리오 등 각자 흥미를 느끼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죠"

각 모둠별로 준비한 소품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연극의 전체 진행을 맡은 사회자도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사회를 맡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매끄러운 진행 실력을 뽐내자 이내 공연이 시작됐다.

첫 공연은 '태옹이의 화려한 과거'(모듬명)팀이 무대에 올랐다. 학생들이 읽고 각색한 문학작품은 <하늘은 맑건만>이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현대 작가의 소설로 심부름을 하던 중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주인공 문기의 갈등과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지갑을 못 돌려줬으니 태옹이가 엄마 심부름을 하면서 써버린 돈을 채운 다음 경찰서에 가자." "태옹이는 심부름과 청소 등을 하며 이미 쓴 돈 3만 원을 채워 넣었고,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지갑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연기력은 살짝 부족(?)했지만 학생들의 시선에서 각색된 작품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료했다. 관객석에 앉은 학생들도 사뭇 진지하게 다른 모듬의 연기에 몰입해 있다. 다섯 모듬의 리허설이 끝나자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연극을 처음해보니까 어때요? 얼마 전에 봤던 공연 <완득이>를 떠올려볼까요? 어떤 부분을



1. 소설 <하늘이 맑건만>을 재해석해 연극무대를 꾸민 학생들
2.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있는 한경화 교사의 국어 수업
3. 레디~ 액션! 수업의 사회를 맡은 학생들



4. 학생 배움과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낸다. 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5.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물론 교사도 성장한다."고 말하는 한경화 교사

수정·보완하면 좋을까요?” 백민준 학생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대본을 외우고 시선은 관객을 향하고 목소리도 크게 해야 해요.” ‘현덕번덕’이라고 모둠명을 지은 5조 학생들도 의견을 보냈다. “마칠 때에는 무대 인사를 해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이 수업의 특징은 학생 중심,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이끌어가면서 학생들 스스로 지식과 깨달음을 얻고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적까지 온전히 이해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다보니 활기찬 수업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다양한 모둠별 활동을 통해 협동과 배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 대한 사고력 확장이 이뤄진다.

“학생 배움과 활동중심으로 수업할 때 놀라운 점은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모두 찾아낸다는 점이에요. 강의식·주입식으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많은데요, 오히려 교육과정을 학습자 중심의 수업디자인으로 재구성할 때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깨달음을 얻어 실제로 변화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학업성취율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학습자 중심의 수업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교사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성취기준을 분석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습전략을 설계하고, 교수학습과 평가계획을 설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세부적으로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찾아내고 학생들이 도전하기 쉬우면서도 흥미를 끄는 소재를 수업에 활용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단원별 활동지를 제작한다. 이때 활동지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제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이에요. 궁극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교사인 저도 연구를 게을리 할 수 없죠.”

평가=학습, 수업결과물은 나만의 포트폴리오!

한 교사는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수업,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에 최적화된 수업 모형을 프로젝트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평가와 기록을 프로젝트 학습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먼저, 평가는 교사관찰평가, 동료(모둠 내, 모둠 간)평가, 자기성찰평가로 구분해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평가는 과정중심평가로 하면서 총 차시수업 중



6. <하늘이 맑건만>의 주인공 문기의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도식화한 결과물.
7.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들

서전을 구성해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계획하는 글을 쓰는 것을 성취기준을 잡고, 이와 관련된 채점 항목을 설정해 성취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평가가 아닌 수업의 일환이자 배움의 일부로 평가를 경험하게 됐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성찰평가와 함께 교사, 동료의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평가 결과도 점검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평가와 기록이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면서 과정평가 중에 학생 개개인의 배움 정도를 확인하고 피드백해줄 수 있는 부분과 수행과정 중에 학생특성을 정리해 학생의 성장발달 과정을 환류 조치할 수 있는 점도 주요한 장점이라고 말한다.

한경화 교사의 평가-기록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1학년 이혜빈 학생은 “동료평가를 통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되고 모둠원들과 협동하는 것의 중요성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또 자기성찰평가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돼 생각이 자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한 교사의 평가방식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평가라고 극찬했다.

‘자신의 수업철학을 굳건히 세워라’

한 교사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광고제작수업을 진행하면서 포스터 제작과 광고영상, 라디오녹음 등도 만들어 학교 내에서 방영하는 한편, 2016년부터는 매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쓴 글들을 모아 단행본을 발행해오고 있다. 국어수업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해 창의적 글쓰기를 지도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개성을 담은 글들을 엮어 <열다섯, 우리들의 꿈>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곧이어 시집 출간도 앞두고 있다.

올해로 교직 28년차를 맞은 한 교사, 그는 동료와 후배 교사들 사이에서 국어과의 전설로 불린다. 그의 수업을 듣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 상당수는 언어영역에서 1등급을 받는가 하면, 천안동성중학교에서 두 권의 책을 내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의 제자 중 한 명은 지금 작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철학은 굳건히 세워야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철학이 녹아든 수업디자인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경화 교사는 앞으로도 크롬북을 활용한 수업, 대학별 강의를 무료로 보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무크(K-Mooc)와 연계한 수업 등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수업혁신을 이끄는 다채로운 시도를 이어갈 생각이다. ②

경기도교육청 예술공감터 학교, 예술을 입다



1



1.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하고 즐길 수 있는 아티움 음악수업
2. 밝고 편안한 분위기의 아티움 내부

2

예술놀이터? 상상놀이터?
정형화된 교실은 이제 그만! 모두가 칠판을 바라보는 강의식 교실에서 벗어나 학교 공간이 무한 변신을 시도 중이다. 누구나 전시에 참여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공감터. 여기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 활동이 아이들의 감수성을 키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유휴 교실과 공간을 일상적인 예술 활동 공간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공감터는 올해부터 일상적 예술향유 공간인 전시터·공연터 100교와 복합문화예술공간 3교에 예산지원으로 구축을 시작, 지난 7월 복합예술공간이 처음으로 개관했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어떤 상상을 하고 있을까?

학교 유휴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경기 하남 미사중학교 1학년 음악수업.

자유학년을 보내는 아이들이 중간평가 시간을 맞아 컵타 공연에 한창이다. 자신들이 선곡한 최신곡에 맞춰 흥겹게 컵을 두드리는 아이들. 네모난 책상 위에서 자유자재로 컵을 이동시키며 하나 된 선율을 만들어 낸다.

“여러분, 이제 아티움으로 이동해 신나는 리듬을 배워봅시다!”

음악수업 중간, 컵타 공연을 끝내고 아이들은 음악실 옆 미사아티움(Artium)으로 향했다. 4층의 넓은 복도 한 편에 마련된 교실 두 칸 규모의 공간. ‘What do you imagine?(당

신은 무엇을 상상하나요?)’란 글귀 아래 작은 무대가 놓여 있고, 맘껏 구르고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루가 펼쳐져 있었다. 양옆으로 뚫린 동그란 창을 통해 햇빛이 쏟아지고, 천장 벽을 뜯자 더 시원해진 공간이 무미건조한 복도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이날은 다음 시간에 배울 아리랑 장단 배우기. 30여 명이 아이들이 바닥에 편히 앉더니 앞에 놓인 장구를 힘껏 두드린다. 덩-기덕-쿵-더러러러! 쿵-기덕-쿵-덕! 교사의 구령에 맞춰 놀이하듯 두드리는 장단. 음악수업은 이곳에서 더 신나고 더 재밌어졌다. 박혜윤 음악교사는 “자유학년을 보내는 중학교 아이들은 발표하고 활동하는 수업이 많다. 아티움은 이러한 수업 변화에 꼭 필요한 공간”이라며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여는 작은 콘서트도 기획 중이다. 아이들과 연습실로도 사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 같다.”고 말한다.

수업 종이 울리자, 이번엔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동그런 의자를 가져와 편하게 모여 앉은 아이들은 벌써부터 신나는 표정이다. 이번 수업은 줄의 밴드를 이용해 점프하거나 달리는 동작으로 창작 댄스를 만들어 보는 시간. 넓은 마루 공간에서 고무줄놀이를 하듯 이리저리 뛰는 사이, 아이들 표정은 한결 더 밝아졌다. 1학년 이준 군은 “아이들하고 편하게 모일 수 있어서 좋다. 재미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많아졌다.”며 웃는다.

문화예술 체험으로 감성 UP... 학생 자치가 성공 요인
미사중은 올해 2월 예술공감터로 선정, 경기도교육청으로



“아이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활동할 수 있어서 더욱 즐겁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 내 마련된 사생활 공간 같다.”

정민준 /학년

“부담을 내려놓고 발표할 수 있어 좋다. 아이들도 더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었고, 악기를 다양하게 다뤄볼 수 있는 장소여서 좋다. 장구를 치면서 무척 신이 났다.”

안유정 /학년



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아티움을 개관했다. 7차에 걸친 협의를 거쳐 4층 한 편에 마련된 아티움은 아이들이 와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계했다. 밝은 자주색 타원 벽체와 천장 목조공사, 폴딩 도어에 작은 발표 무대까지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가 돋보이는 공간으로 연출한 점이 눈에 띈다. 오정숙 교장은 “신설학교는 유희 공간이 거의 없다. 주변 공사로 야

외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교내 공간의 변화를 꾀했다.”며 “아이들이 앉아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아이디어 발표도 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꾸미고 싶었다. 여기 오면 카페에 온 것처럼 느끼도록 하고 싶다.”고 말한다.

개관 이후 이곳은 아이들의 감성을 채우는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키보드, 바이올린, 뮤지컬, 방송댄스, 난타, 국악, 필라테스 활동이 이뤄지고, 관악오케스트라(하모니), 실용음악, 보컬동아리들의 연습 공간으로도 쓰인다. 반가 합창대회나 팝송대회 등은 물론 교내의 작은 예술토크콘서트도 계획 중이다. 인근 학교와 구성한 하남 드림오케스트라와 연계한 꿈의학교 연습실로도 안정맞춤이다. 오숙의 교감은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 앞으로 학생회 활동 강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자치활동이 공간 운영에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말한다.

갤러리·공연장 등 학교 공간의 다변화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예술영역을 체험할 수 있는 소극장, 연극실 등 복합문화예술 체험 공간은 부족한 게 현실이다. 경기도 전체 학교의 60% 이상이 일상적 전시와 공연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예술 활동 공간 필요성은 일찍부터 요구돼 왔다. 이를 위해 몇몇 학교들은 일찍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다.

안양여고 1층 복도 공간은 갤러리로 변모했다. 2014년 조명과 목공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전시장 분위



3. 아티움 내 발표무대에 올라 장구 솜씨를 선보이는 아이들
4. 점프 창작댄스 체육수업



기를 연출했다. 자율동아리 학생들이 ‘갤러리 주인장’이 되어 팀별로 기획전을 여는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으로 공간을 적극 활용 중이다.

반면 수원 가오초는 학교 건물 2층에 작은 발표 무대를 만들었다. ‘우다다 광장’에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수요일 오전 공연을 펼치면서 학교는 더욱 활기차졌다. 전교 학생회는 회의를 통해 2주 전 ‘우다다 광장 게시판’에 과정을 발표하고, 다양한 신청을 받아 꿈과 끼를 발산하는 기회로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교육청은 복합 문화예술 공간뿐 아니라 학교 특성에 따라 전시나 공연 등을 펼칠 수 있

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는 100개교를 예술 공감터로 선정하고, 학교 공간을 일상적인 문화예술 전시 및 발표 공간으로 구축하고 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기획·운영에 참여하고, 일상에서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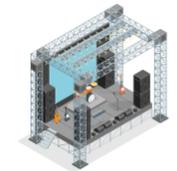
류혜석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들의 마음치유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방향”이라며 “공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한다. 2

예술공감터 형태



1 일상의 예술 작품 갤러리

- 학생들의 학습결과물 및 예술동아리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이상의 예술작품 갤러리
- 학교 문화예술교육 가치를 공유하고 교류 가능하게 하는 문화예술을 통한 시각적 소통의 장
- 학습결과물 전시, 예술동아리 작품 전시, 사제동행 전시회 개최, 교원·학부모 작품 전시



2 소통과 공감의 공연장

- 교육과정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 결과, 예술 동아리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작은 무대
- 연극, 무용과 같은 공연과 악기연주, 합창 등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교육 발표의 장
- 학습결과물 발표, 예술동아리 발표, 게릴라 콘서트, 작은 음악회



3 복합 문화예술 체험공간

- 교육과정 중심의 예술 체험과 실습, 예술동아리 활동과 발표회,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체험 공간
- 지역 예술가, 유관기관 참여 유도, 지역 학생 참여 등 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거점
- 다양한 영역의 예술 체험, 교사연수 운영, 예술 기반 프로젝트 수업, 지역주민 예술 체험, 공연 및 전시 공간

전남 학습자중심교육연구회

배워서 남 주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나눔



“여기가 오늘 월간세미나 열리는 곳 맞나요?”

“이번 월간세미나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난 9월 8일 토요일 이른 아침, 전남 신대초등학교 도서관에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학교가 쉬는 토요일 아침에 여러 선생님이 모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도서관 앞에는 ‘학습자중심교육연구 세미나’를 알리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어, 이곳에서 세미나가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선생님들의 눈빛에는 이른 아침의 피곤함보다는 열정과 설렘이 담겨 있었다. 마치 어린 초등학생처럼 초롱초롱한 눈빛들이었다. 도서관 한쪽에서는 한창 세미나 준비로 바쁜 선생님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매월 무료 나눔 강연을 여는 선생님들

‘전남 학습자중심교육연구회(회장 박희진, 이하 연구회)’는 ‘교사의 노력으로 수업이 변하다’라는 비전으로 전남의 현직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연구회이다. 연구회는 신규교사부터 중견교사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며, 평균연령 34세로 연구회 회원 다수가 젊은 교사들이다. 이 연구회만의 독특한 점은 젊은 구성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월간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어느 다른 연구회에서는 찾기 힘든 점이다. 연구회는 매월 ‘월간세미나’를 무료로 공개 개최하여 수업,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관한 노하우와 지식을 ‘나눔’하고 있다. 28명의 연구회 회원들이 어느 곳의 도움 없이 기획부터 준비, 진행까지 다 하는 자발적인 연구세미나이다.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박희진 순천부영초 교사는 “월간세미나는 교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 나눔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월간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9월 세미나는 연구회가 여섯 번째로 마련한 세미나이다. 지난 1월 20일, 제1회 월간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연구회는 꾸준히 월간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회 때부터 이번 6회까지 학습자중심교육을 중심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노하우를 주로 다뤘다. 특히, 연구

연구회는 매월 ‘월간세미나’를 무료로 공개로 개최하여 수업,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관한 노하우와 지식을 ‘나눔’하고 있다.



회는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전라남도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세미나마다 다양한 주제들을 준비하여 많은 교사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세미나 개최일이 항상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세미나마다 30-40명의 교사가 참석한다. 또한 여러 지역의 교사들이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고민의 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학교혁신을 위한 시도… 어려운 것을 쉽고 유쾌하게!

세미나는 참여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연구회 자체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바로 세미나 발표 중 우연히 나누는 대화들이 연구회의 상징이 된 것이다. 연구회의 모토인 ‘초등교육이란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깊게, 깊은 것을 유쾌하게’는 연구회 세미나 중 논의를 통해 나온 내용으로, 현재 연구회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세미나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연구회의 일원이 되어가며 지식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도 세미나를 통해 연구회의 발전 방향과,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9월에 열린 제6회 세미나는 ‘이번 세미나의 주인공은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란 주제로, 교직에 새로이 발령을 받은 신규교사들과 저경력 교사들을 위해 열렸다.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이 다수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초등학교 교사는 전문가인가’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학교생활 전반을 함께 이야기하며 젊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고, 서로가 옹기종기 모여 여러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마무리될 정도로 세미나 동안 선생님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송민영 죽곡초 교사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에너지를 얻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연구회는 월간세미나 이외에 각종 맞춤형 연수, 수학 및 과학 축전 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월간세미나에서 나누는 내용을 바탕으로 칼럼을 투고하고, 도서 출판 등을 통해 교육경험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러한 나눔 활동을 통해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물론 연구회가 운영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희진 교사는 “우리 연구회의 작은 노력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혁신이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연구회는 오는 10월에 전남 수학 축전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하고, 이어 11월에 제7회 월간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눔을 통해 학교혁신을 선도하는 학습자중심교육연구회의 앞날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㉞

“ 글 김민중 명예기자

‘북한 음식 체험의 날’로 통일 앞당겨요!



지난 9월 17일(월) 대구 다사초의 학교 밥상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바로 북한 음식 체험의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작은 이벤트였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따로 시간을 내어 특별히 연구까지 하여 북한 음식을 만들었고, 학생들은 생소하고 조금은 낯선 북한 음식으로 호기심 가득한 점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한 음식 메뉴는 무척 다양했습니다. 닭고기와 나물을 섞어 양념장을 끼얹어 비벼 먹는 해주식 비빔밥과 황해도식 김치찌개, 함경도식 북어포 초무침, 개성무침, 황해도식 청포묵 무침과 백김치 등 북한 여러 지역의 이름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해주식 비빔밥은 해주교반이라고도 하는데 고추장 대신 청장이라고 하는 습습한 양념장으로 간을 하고 닭고기를 듬뿍 넣어 비벼 먹는 고단백 영양식입니다. 개성무침도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간장 양념에 푹 끓인 뒤 삶은 무와 함께 찐 요리로 대표적인 고급 요리라고 합니다. 또 황해도에서는 늪은 호박으로 김치를 담가 찌개를 끓인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한 그릇씩 딱딱하고는 북한 요리에 대한 감상을 시로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밍밍하고 맛이 없다는 솔직한(?) 감상을 남겼지만 많은 학생들은 북한 음식을 먹으면서 북한도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느꼈고, 통일이 되어 더욱 다양한 북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기특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북한 밥상을 깨끗이 비운 김예솔 학생은 “북한 음식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상할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먹는 밥상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며 아주 맵지 않고 건강한 맛의 북한 음식이 취향에 맞다고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 글 이재찬 명예기자

‘모두배우장’에 놀러오세요!

서울시 평생학습센터 모두의 학교는 지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모두의 책방’ 개관 및 가을학기 개강을 시민과 함께 하는 축하행사로 가졌다. 모두의 책방은 현재 사람(인물), 시간(역사), 공간(지역) 3개 분야의 2000여 권 장서를 제공한다. 올해 말 4,000여 권, 2020년 9,000여 권의 장서를 구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된 도서는 물론, 매달 시민 큐레이터가 제안하는 희망도서도 구비한다. 가을학기 강좌는 자기표현 사진 찍기, 코딩으로 하는 미디어아트, 모두를 위한 픽토그램 디자인, SNS 글쓰기 장인 학교, 우리 동네 비보이 등 총 12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모두의 책방은 앞으로 재활용 팝업북 만들기, 나를 표현하는 책 만들기, 삶의 기록, 지역 어르신의 청춘일기 전시 등 이색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모두의 학교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전 세대를 위한 배움과 문화의 공간으로 다양한 분야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



“ 글 조원표 명예기자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2018 실패박람회가 9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로서 기존의 실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계기가 되었다.

광화문 광장 행사와 더불어 교보빌딩 컨벤션홀 23층에서는 실패문화 콘퍼런스도 진행되었는데, ‘불확실한 미래의 새로운 동력: 실패의 전환’을 모토로 사회혁신 민간협의회 위원장인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 국제 실패학회 부회장인 일본의 아이노 겐지 교수, 최재천 국립생태원 초대관장이자 이화여대 석좌교수, 메가스터디 이다지 역사강사가 출연해 실패에 대한 연구보고와 주제 강연 그리고 주제 토론을 이어갔다.

최재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실패를 인정해주는 사회풍토가 매우 중요함을, 김경민 교수는 학교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을 강조했다.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다지 역사강사는 세종의 리더십과 실패 경험을 소개했고, 겐지 교수는 실패는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원동력이므로 실패는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라고 말했다.

이번 2018 실패박람회는 기존의 실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실패를 낙으로 낙인찍지 말고 관대하게 품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글_ 박현숙 명예기자

학교 명상숲에서 힐링해요!

학교를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산림청 '2018년 명상 숲 조성사업'에 광주 울곡초등학교(교장 김선수)가 선정되었다. 여름방학 동안 잘 꾸며진 명상 숲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공개되었다.

명상숲에는 산벚나무를 비롯해 금목서, 수국, 채송화, 맥문동, 공작단풍, 화살나무, 산철쭉, 은목서, 털머위, 먼나무, 무궁화 등 15종의 나무와 꽃들이 저마다의 자세를 뽐내고 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친구들과 명상숲을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보낸다.

이곳을 이용한 한 학생은 “친구들과 마음껏 거닐 수 있어 좋다. 숲이 학교 안에 마련되어 안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명상숲 수업을 진행한 1학년 교사 또한 “뚝자리 하나 펴고 자연과 함께 수업하니 아이들도 즐거워한다. 보존 관리를 잘해 많은 분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자연학습 및 체험이 가능한 명상숲은 학생들에게는 생태학습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 글_ 김은성 명예기자

독일과 헝가리에서 온 교환학생

인천 신명여자고등학교(교장 권진수)에서는 외국 학생들이 교환 학생으로 와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독일에서 온 미라 보타체크(Mira Wojtaszek) 양과, 헝가리의 에바 볼라(Eva Bola) 양이 2학기에 신명여고 1학년 학생으로 들어와서 연수를 받게 되었다.

이 학생들은 신명여고 재학생의 집에서 홈스테이하며 다른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곁게 한복을 차려입고 전통 차 예절 교육도 받았고,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명동, 인사동 및 경복궁 등을 방문하였다.

기자가 직접 만나본 헝가리의 볼라 학생은 벌써 한국어도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고 즐겁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국 생활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아주 잘하고 있었다. 교환학생들은 신명여고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글_ 최석원 명예기자

발명 진로교육으로 인재 양성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센터장과 부산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11개 구·군)의 센터장을 포함한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명 진로교육 협력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8월 23일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정보교류와 운영지원 등 지속적인 상호협력은 물론, 다양한 발명창업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발명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얻게 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상호 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한 교류 △다양한 발명창업 진로·진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공동 협력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 활성화를 위한 자료 및 관련 정보 공유 △협력업무 계획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협의체 구성 등이다.

강나민 사하구진로센터장은 “우리의 역할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진로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함이다. 오늘의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과 발명문화를 확산하는데 그 시작점이 되는 자리이다.”라며 이번 행사에 의미를 전했다.

“ 글_ 노호룡 명예기자 '책다운맘(mom)'의 행복한 책 읽어주기



어김없이 매주 수요일 8시 30분이 되면 8개 교실에는 다정다감한 목소리와 동화 속 주인공이 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책다운맘(mom)'의 행복한 소리로 가득하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과 재미있는 표정을 콜라보로 표출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행복한 교육의 진심이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바로 이곳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천안쌍정초등학교(교장 최경섭)다. 이곳에 매주 수요일 아침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면서 언제나 문지기처럼, 때로는 집과 같이 편안하게, 책으로 행복한 교류를 실천하는 '맘(엄마)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꺼내 놓는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일이지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면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학교에 이야기하여 시작하게 되었어요. 책 읽으러 다 오라는 뜻에서 '책다운맘'이라 이름 짓고,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통해 행복함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책 읽어주는 소리로 아이들의 호기심과 생각, 즐겁고 행복한 웃음, 다양한 표정 등을 끄집어 낼 수 있다는 건 아이들이 일주일을 기다렸다는 증거이고, 아이들의 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더 잘 읽어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동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저희 '책다운맘'들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한쪽 멀리에서 듣기만 했던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맨 앞에서 관심을 갖고 책 읽는 소리를 들어주고, 질문도 해주니까 그 순간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죠”

“엄마들이 아침 시간에 학교에 와서 매주 한 번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책다운맘'은 집에서 엄마들이 책을 읽어줄 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책다운맘'을 만나는 것이 꿈입니다.”

'책다운맘(mom)'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책다운데디(daddy)'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올바른 참된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책을 읽어주는 '책다운맘'이 있기에 돌아오는 길이 설레고 행복했다.



“ 글_ 차현숙 명예기자

청소년 전용 무료극장을 아시나요?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은 9월 1일부터 청소년 전용 무료극장인 'BNK 부산은행 나도 스타홀'을 운영한다. '나도 스타홀'은 기존에 BNK부산은행 조은은행에서 운영하던 공연장(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을 리모델링하여 음향, 조명, 무대 장치를 완비한 청소년 전용 무료극장이다. 뮤지컬, 연극, 무용, 국악 등 각종 장르의 현장실습 공간과 청소년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제작 및 연습 공간으로 운영된다.

부산은행은 지난 7월부터 부산시 교육청과 함께 부산지역 교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사연극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 지역 교사의 연극 지도 역량 강화와 동시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나도 스타홀'은 BNK부산은행 조은극장에서 상시로 운영하며, 무료 대관 신청은 9월 1일부터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대표전화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BNK행복한 힐링스쿨', 'BNK행복한 씬지 경제콘서트', '도와줘요 안전맨' 등 찾아가는 무료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 글_ 강은아 명예기자

지역사회문화센터가 된 학교의 변화

경북 성의고등학교(교장 정재승)는 지난 4월부터 작년에 이어 2기 평생교육 교양강좌를 열었다.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명심보감과 논어, 생활중국어가 개설돼 꼭 한 번 들어볼 만한 강의로 주목받고 있다.

김천 시내에서 학교 주최로 교양강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안으로 학부모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밖으로는 지역 시민과 더불어 누구나 편안하게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문화센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재능기부로 교양강좌를 맡은 이상구 강사는 “학부모들이 열심히 들으니까 열심히 강의 안 할 수가 없다.”고 밝게 웃으며 그 소회를 나눈다.

올해부터 2015 교육과정에선 학생의 진로선택권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고전 읽기와 수학과제 탐구, 경제수학과 영미 문학 읽기 그리고, 여행지리와 융합과학, 과학사에 이르기까지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반드시 세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부모로서 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소양 과목을 배운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 글_ 양지훈 명예기자

고양 백양초 '나눔 축제' 삶의 가치를 깨우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행복 가득한 구매하세요.”

“모든 수익금은 기부 활동에 쓰입니다.”

학생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학교 곳곳에서 울려 퍼진다. 목소리를 따라가 보니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학용품과 책 등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 돗자리 위에 진열해 팔고 있다.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전 학년이 판매자이면서 구매자가 되어 펼치는 '나눔 축제' 현장이다. 판매부스 사이사이에 학생들이 창업부스를 운영, 직접 샌드위치, 음료수를 파는가 하면, 게임 운영도 하고, 네일아트 등 백양초 나눔 장터에 활기가 넘친다.

지난 10월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백양초등학교(교장 송병일)에서는 '2018 나눔 축제'가 열렸다. 나눔 축제 1부에서는 '나눔 장터'를, 2부에서는 '축제'로 진행되었다.

'나눔 장터'는 크게 2개의 축으로 운영된다. 저학년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가져와 판매하는 형식으로, 고학년은 경제교육을 확장하여 올해 처음으로 창업을 시도했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 백양초의 '나눔 축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제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합리적인 소비의 주체로서 성장하고 나아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경제교육, 공정무역, 나눔, 기부 등을 배웠다. 이날 '나눔 축제'는 '배움이 의미 있는 '삶의 가치'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창업에 참여한 김민서(4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어떤 창업을 할 것인지 정하고, 메뉴에 맞게 재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재미있었다.”며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유진 교사는 “4~6학년 아이들에게 창업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창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하였던니 서툴지만 스스로 창업계획서를 작성했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 사업장명, 사업내용, 준비물품, 필요예산 등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나눔 장터의 기부 물품은 최고 5천 원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정했다. 또한 나눔 축제의 취지를 살려 수익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각 학급별로 나눔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부단체를 결정하였으며, 이날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학급회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학생자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다. 2부 나눔 축제에서는 전교생이 모여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의 장과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백양초의 나눔 축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자율적 배움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백양초등학교의 '나눔 축제'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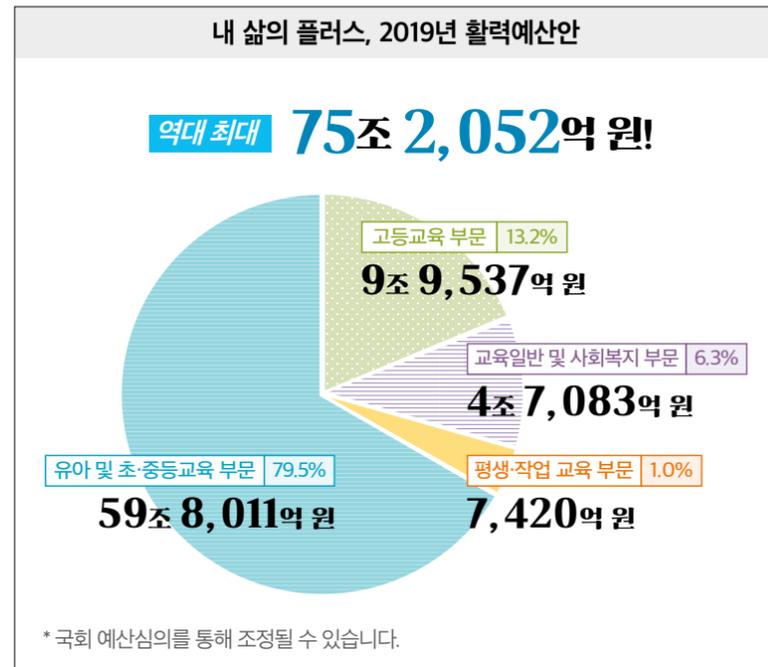
2019년도 교육예산으로 삶의 활력을 더 플러스 합니다

1.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 전체 모습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68조 2,322억 원 보다 6조 9,730억 원(10.2%) 늘어난 75조 2,50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59조 8,011억 원, 고등교육 9조 9,537억 원, 평생·직업교육 7,420억 원, 교육일반 등 기타부문은 4조 7,083억 원을 편성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의 10.2%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 보다 0.5%p 높게 증가한 것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정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교육부 예산 현황 : (15) 53.6 → (16) 55.7 → (17) 61.6 → (18) 68.2조 원



2.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부문별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지방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 등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19년도에도 전액(1조 9,812억 원) 국고로 지원하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등교육부문은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일반재정으로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총체적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 국립대학이 지역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혁신지원'을 확대·개편하였다.

평생·직업교육부문은 미래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선취업·후학습 여건 조성을 위해 대학의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하였다.

3.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 주요 특징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

정부는 만 3~5세 유아를 둔 학부모에게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전 계층에 대해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18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액(1조 9,812억 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1조 7,628억 원)로 부담하여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 확충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따라,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보호와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하여 '19년도 돌봄교실 700실 확충비 2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18년부터 매년 210억 원(700실)을 지원하여 '22년까지 돌봄교실 총 3,500실 확충

무한상상실 등 창의·융합형 교육환경 기반 강화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4개소 운영 중인 창의교육 거점센터를 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국립중학교(7교)에 무한상상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한상상실 : 학생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 교육급여, 최저교육비 100% 수준 인상

저소득층 학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급(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추가)하는 교육급여는 당초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앞당겨 조기 인상된다. 수혜를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 (초)116,000원→203,000원, (중·고)162,000원→290,000원 (고교는 학비 추가 지원)

< 2018년 및 2019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급여항목	대상	최저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		지급 방법
			'18년	'19년(안)	
부교재비	초	131,208원	66,000원	132,000원 (100% ↑)	연 1회
	중·고	208,860원	105,000원	209,000원 (99% ↑)	
학용품비	초	70,494원	50,000원	71,000원 (42% ↑)	연 1회 (기존 연 2회 분할지급)
	중·고	80,826원	57,000원	81,000원 (42%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고	-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및 학년별 교과서 전체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기반 구축 지원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총체적 자율 혁신 지원을 위해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대학이 스스로 작성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교육부와 대학 간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하여 성과지표 이행 중심 평가로 공적 재원의 책무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창출의 원천인 대학이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형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교육·연구·혁신 거점으로서 국가균형발전 견인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연구·혁신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1)) 사업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대학 고유의 발전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함으로써 전체 국립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국립대학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생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내년에도 약 4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국가장학금을 약 3조 6천억 원 투입하여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받는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의 교내근로 단가 인상(8,000원→8,350원) 및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4만명→4.6만명)를 통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18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II 유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재부, 국토부 및 지

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22년까지 대학생 5만 명(실입주 3만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5,414억 원을 투자하여 40개 기숙사를 건립(10개는 공사 중)하였으며, 2019년에는 1,180억 원을 투자하여 6개 기숙사를 신규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지원 확대, 공공요금 인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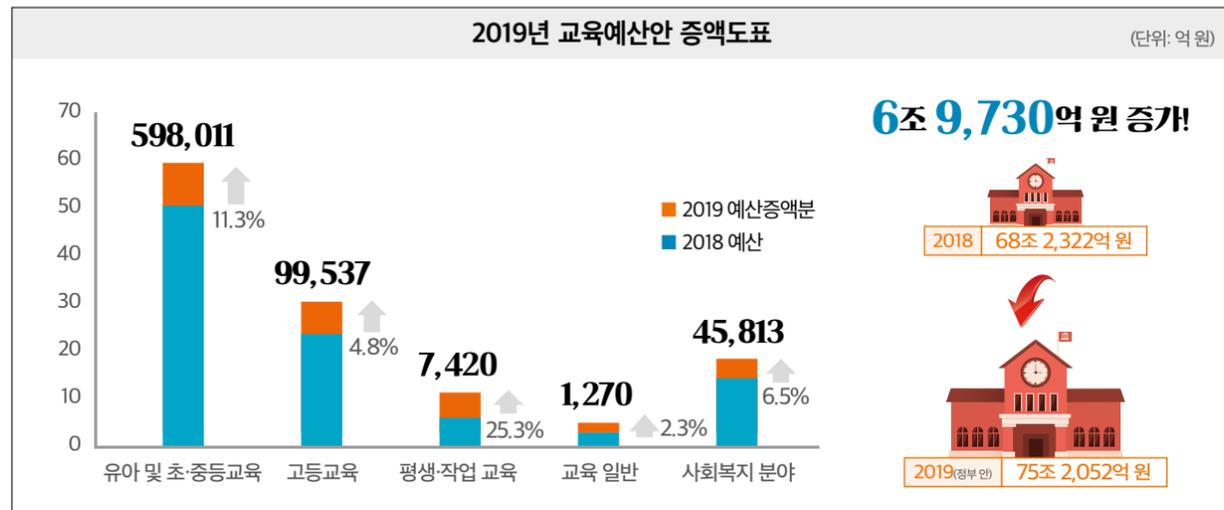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http://www.kfpp.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시설 안전 환경 조성 예산 확대

작년 포항지진을 계기로 학생 및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초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먼저, 내진보강은 위험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 원(교부금)을 투자하여 당초 계획인 2034년 보다 10년 단축하고, 그 외 지역 초·중·고교는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은 매년 1,000억 원(국고)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석면제거는 초·중·고·대학교 모두 2027년까지 철거를 목표로 매년 초·중·고교는 2,827억 원, 국립대학은 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급변하는 사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상향식(Bottom-up) 지원 방식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인생 2모작 시대에 따라 재직자·구직자·은퇴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후진학 선도형 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확대 지원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으나, 2019년부터 전문대학 6개교를 신규 선정·지원하여 성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4년제 대학에 대해서도 2018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0개교를 선정·지원하여 대학이 학령기 학생 위주의 체계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고교생의 선취업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을 이수한 고3학생(졸업예정자)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의무종사를 조건으로 1인당 3백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올해 24,000명에서 1,500명이 늘어난 25,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려금을 지원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은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어 목돈 마련(2년 근속시 1,600만 원, 3년 근속시 3,000만 원)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후, 배움에 뜻이 있어 대학생으로 입학할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II 유형)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교육 기회 보장 확대

2018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한 실질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7,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를 국가 차원에서 지속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운영

2015년부터 우수강좌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신산업·주요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및 직업교육 강좌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강좌를 확대 제공하고, 맞춤형 강좌추천 등 학습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사이트(www.kmooc.kr)를 통해 확인 가능

4. 맺음말

교육부는 정부의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모든 아이가 행복한 학교, 모두의 성장이 열려 있는 사회'가 되도록 유아에서 성인까지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 따로, 또 같이



1. 인천 장애학생 합창단 '라운'과 인천예술고 합창단이 함께한 개막식 공연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꼭 안아 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비록 휠체어에 의지해 부르는 노래지만 그 울림은 더 크고 강하다. 지난 4월 창단한 인천광역시 장애학생 합창단 '라운'의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를 '사랑'으로 꼭 안아주자고 말하는 아이들의 바람은 감동의 선율을 자아냈다. 지난 9월 18일 개막한 제4회 대

한국 어울림축전은 라운의 하모니를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장애와 비장애 간 벽을 허물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열린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은 올해 4회째를 맞이하며 10만여 명이 다녀가는 어울림의 장으로 거듭났다. 특히, 교육부 주최,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전은 '모두가 행복한 문화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약 15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6개 전시관과 120여 개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경험

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여행에 '장애'는 없다! 경인교대 특수교육학과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를 소개하며 물리적·심리적 장애물을 없앤 '장애인 여행'을 선보였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패럴림픽 종목 등을 체험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인천예림학교 김현희 특수교사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학교다. 가족공예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는데, 선보일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관과 특수교육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해 특수교육을 소개하는 한편, 과학관과 어울림관에서는 일반학교 과학동아리와 인천지역 대학생이 직접 부스를 기획해 운영하면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다. 이튿날에는 12개 팀이 펼치는 합창경연대회와 소설가 손아람과 아티스트 김아타를 초청해 장애공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문학 콘서트 '사람&공감'도 열려 높은 호응을 얻었다. ②



2



3



4



5



6



7



8

보편적 설계로 만드는 존중, 평등, 자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 음료를 쏟을 염려가 없는 넘어지지 않는 컵, 고리를 풀지 않아도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신발끈 등등.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그리 멀지 않은 곳, 우리 생활에서부터 변화를 요구한다.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 Universal Design, 이하 UD) 전시가 새롭게 선보였다. UD는 본래 건축학에서 시작된 용어지만, 사람의 모습이나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모두를 일컬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 특수교육이나 장애인권 현장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는 UD 총 64개 제품이 이번 전시회에 소개되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여기에는 한 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봉틀, 손을 다칠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철심이 필요 없는 스테이플러, 팔목만으로 들 수 있는 C자형 손잡이 우산 등 안전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디자인들이 선보였다.



김중만 작가와 함께 하는 장애인 인권 사진전



전동휠체어로 여행을 다니며 글을 쓰는 여행 작가 하석미 씨, 휠체어 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로 '휠체어무용'이라는 영역을 개척해 가고 있는 김용우 씨, 의수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석창우 씨, 장애인들의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오용 씨... 물리적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한 10여 명의

얼굴이 김중만 사진작가의 렌즈에 오롯이 담겼다. 제4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에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전시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더불어 장애를 극복한 이들을 담은 스웨덴 마르쿠스마르세틱 작가와 학생 작품도 공동으로 전시됐다.



- 2. 어울림축전 홍보부스 전경
- 3. 대전원명학교 예코 우드스피커 만들기
- 4. 전남교육청 부스 VR 체험
- 5. 포항명도학교 학교기업다빈타르트 만들기
- 6. 세종누리학교 가방 만들기
- 7. 특수교사들의 작품 전시회
- 8. 인천예림학교 학생들이 만든 가족공예 전시
- 9. 인천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 학생들의 개막식 공연



9



교육을 바꾸는 학생들의 외침, 청소년 100인 토론회



“토론회라 말 잘하는 친구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나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제가 느끼는 교복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교육청에 전달할 수 있어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학생이 만드는 학생의 정책이라 신기하고, 긴장되고, 책임감이 느껴진다. 학생의 제안이 실제 이루어지는 성취의 경험이 많았으면 한다.”

지난 9월 18일 ‘청소년정책 100인 토론회’가 열렸다.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된 100명의 중·고생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이 질문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청소년정책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는데 의미가 크다.

토론회에 참석한 도성훈 교육감은 “열띤 토론을 통해 나온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의된 정책은 해당 부서에 전달되고,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가 공개된다.

올해 처음 시도된 ‘청소년정책 100인 토론회’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기치로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토론 주제를 선정했다. 참여 학생들은 학교 내 교복 관련 개선 방안, 학생 인권과 교사인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 수학여행, 수행평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청소년의 생각을 전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우리 교육청 청소년 정책 수립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토론회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0월에 광장토론회, 정책버스킹 등의 다양한 시민 정책 제안 창구를 늘려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희귀·난치병 제자 돕는 보건 선생님들



2016년 원주 단구중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은 림프마다 암세포가 퍼지는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았다. 입원실이 나지 않아 서울아산병원 근처에 월세방을 잡아놓고 외래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경찰공무원인 아버지 월급을 다 쏟아 부어도 모자라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아빠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강원도보건교과연구회에서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2018년 기준으로 강원도에 있는 난치병 학생 수는 166명. 강원도 보건교사들로 구성된 강원도보건교과연구회는 자발적인 성금활동으로 희귀·난치병 학생들을 돕고 있다. 2007년 시

작돼 벌써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 그동안 182명의 학생들에게 총 2억 8,230만 원을 지급했다.

“최소 만 원부터 백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연을 보면 가슴 뭉클한 내용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애쓰고 있어요.”

강원도교육청 교육안전과 권찬희 장학사가 얘기했다. 난치병 아이들에게 성금을 주는 기관은 많지만, 대부분 조건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다. 힘든 처지에서 이것저것 서류를 갖춰 제출해도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원도보건교과연구회는 학교 보건교사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금을 받았던 한 학부모는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까지 따지며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부모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 보건 선생님들이 지원해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며 “아픈 아이를 둔 부모마음을 잘 이해해주시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사랑의 아침 밥상, ‘밥심(뎃말:심)’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영산고등학교(교장 백용규)는 매일 아침밥을 정성껏 짓는 선생님과 아침밥을 맛있게 먹는 학생들의 즐거운 이야기 소리로 가득하다.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은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아 영산고는 9월부터 ‘밥심’을 시작했다. ‘밥심’은 밥을 먹고 힘을 낸다는 의미의 ‘밥 힘’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심’을 합한 경상도식 표현이다. ‘밥심’은 매일 아침 학교 창작공방실(조리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학교 백용규 교장과 정희정 교감은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어야 뇌 활동이 좋아져 공부도 잘 하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다”, “밥심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부문화가 잘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가장 먼저 ‘밥심’을 위해 쌀과 김치 등을 제공했다. 이 같은 마음은 교직원, 학부모는

물론 지역인사, 단체 등으로 확산되어 쌀과 식재료, 금일봉 등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유경진 학생회장은 “기부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벽화에 부모마음 새긴다, “넌 내 인생 최고의 작품”

‘가고 싶은 직업게고’를 만드는 광주공업고등학교 매직사업(매력적인 직업게고 육성 사업)에 학부모들이 손을 보탰다.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그림으로 학교 벽을 채운 것. 광주공고는 졸업 후에도 ‘엄마’의 글을 찾아가 볼 수 있는 학교가 되었다.

광주공고(교장 김희진)에 따르면 6~7일 매직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벽화꾸미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벽화 꾸미기 주제는 자연과 하나 되는 벽화, 금연 선도, 복도 명화, 캘리그래피,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및 선후배 등이다. 참여자들은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학교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학부모



참여 벽화에 적힌 문구들이 눈길을 끌었다. 한 학부모는 “아들아! 넌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라며 “3.2kg 52cm 아가가 쑥쑥 자라 이젠 엄마보다 20cm 더 크다.”고 적었고 다른 학부모는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밀어 올리는 들꽃,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아, 넌 소중한 사람이라.”고 적은 학부모도 있었다. 매직 사업은 직업게고의 매력도를 높이는 질적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가 지역여건 및 자체 특성 등을 고려해 스스로 구상한 ‘매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학교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인프라 등을 개선해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가고 싶은 직업게고’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남배움의공동체연구회, 수업에서 수업을 배우다

토요일, 저녁 시간을 훌쩍 뛰어 넘은 시간까지 교사들의 배움은 계속된다.

“아이들의 배움을 관찰하는 교사의 저 눈 어디 안 파나요?”

경남 배움의공동체연구회 주관 심화연수에서 한 교사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임상수업을 관찰한 후 배움을 나누고 있었다. 교사가 ‘가르치는 전문가’인 동시에 ‘배우는 전문가’로서 수양과 연수에 힘써야 하기에 경남 곳곳에 지역 또는 급별 17개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다. 매월 1회 월례모임을 열어 수업임상 경험을 축적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과 각 지역에서 ‘배움의 공동체 기초과정 연수’를 2회, 심화과정 연수 4회, 초등 교사를 위한 심화과정 연수를 연구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경남의 각 수업연구회와 교사의 자발성으로 3회째 열리는 수업축제에서도 연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배움의 공동체 철학,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평가, 활동지 제작, 수업 임상 등을 담아 5개 교과와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를 위한 수업설계캠프에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경남의 교사가 700명에 이른다. 수업 철학, 수업디자인 뿐 아니라 교실 속에서 교사는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이들 간 배움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한 아이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교실을 만들지 오늘도 경남 배움의공동체연구회 선생님들은 연구 중이다.



공간이 행복을 만든다! 행복공간 조성사업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전교생 42명의 작은 학교, 송림초등학교(교장 심재성) 운동장 한쪽에 있는 작은 원두막에 아이들이 오순도순 모여 놓고 있다. 이 오두막은 충남교육청의 행복공간 조성사업으로 마련된 공간이다. 행복공간 조성사업은 ‘공간이 행복을 만든다’는 인식에서 출발

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심(이) 있는 행복놀이 정책의 연장선에서 시작된 사업이기도 하다. 쉴 수 있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충청남도는 부족한 심과 놀이를 위한 공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림초 학부모곽지선 씨는 “밖에서 보기엔 원두막이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해 지어졌기 때문에 더욱 학교를 신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좋은 반응에 힘입어 충남교육청은 부서별로 이뤄지고 있는 감성디자인, 생태 친화적 공간조성 등을 유기적으로 묶는 작업과 함께 내년에 예산을 늘려 150개 학교에 행복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 같이 돌아 학교 한바퀴, ‘관산초 둘레길’

장흥 관산초등학교(교장 정정하)는 최근 학교를 둘러싼 담벼락 안쪽으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아니라 학교의 자투리 예산과 교직원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조성 중인 둘레길이다.

관산초 둘레길은 총 3개 구간으로 총길이는 600m 가량이다.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주민들이 폐품 등을 활용해 직접 시공하고 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약 5분 정도 소요된다. 관산초는 이 길을 걸으면서 학생들의 꿈과 지혜가 커지도록 2개 구간을 ‘피순돌이길①’과 ‘피순돌이길②’로 이름 지었다. 아직 미완성된 3코스는 학부모와 지역민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는 ‘힐링투어길’이라고 이름 붙일 예정이다.

학생들은 아침 수업시간 전이나 점심시간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산책을 하고 있다. 중간놀이 활동시간을 활용한 ‘선생님들과 함께 둘레길 돌기’ 교육활동 진행도 준비 중이다.

관산초는 또 배수로에 활용해 수족관을 만들어 수초를 넣고 열대어를



기르고 있다. 산소 발생은 운전원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호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했다. 이밖에도 학교 주변 곳곳에 생명을 불어 넣어 학교가 살아 있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수족관, 관산행복 박물관, 탁구실 등도 만들었다.

3학년 김세연 학생은 “학교에서 자연을 탐구하는 것처럼 둘레길 여기저기를 걸어보고, 물고기도 구경하고 신기해요.”라며 즐거워했다. 정정하 교장은 “둘레길이 학생·학부모·지역민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융합이 낳은 공짜 세상, 공유의 시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나온다. 무슨 뜻일까. 우리는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준다(1+1)’는 광고를 보고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식사를 하면 소주 한 병을 공짜로 준다는 식당도 왕왕 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공짜이겠는가. 자본주의 경제는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며 모든 물건에는 이를 소유한 주인이 있다. 내 소유가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남의 물건을 가지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짜는 없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하지만 만약 소유 개념이 무너지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소유의 시대는 가고, 공유의 시대가 오다

산업혁명으로 기계화가 시작되었고 공장제 대량생산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제조업 성장도 끝없이 계속될 수는 없는 바 주기적으로 불황이 찾아오고 위기를 맞곤 한다. 그러다가 성장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기됐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대량생산사회는 이후에 정보화혁명으로 나타난 정보사회로 이어졌다. 그 다음은 어떤 사회가 올까.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등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통해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를 예고해왔던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이번에는 『한계비용제로 사회』라는 신개념을 들고 나왔다.¹⁾ 시장 자본주의는 협력적

공유사회로 이행할 것이고 기술혁신과 디지털화를 인해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계비용이란 생산물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을 말한다.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아날로그 LP판 하나를 더 제작하는 데 드는 한계비용은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지만 제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디지털 음원 파일의 경우는 다르다. 한계비용은 복제량에 상관없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무한대로 복제해도 원판과 똑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게다가 한계비용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 기반으로 삼는 디지털 경제의 강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전도사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과 물리와 바이오의 융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특히 디지털 세상과 물리 세상의 융합, 즉 CPS(Cyber-Physical system)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통적 자본주의를 떠받쳐온 ‘소유’의 의미는 점점 퇴색하고 있다. 인터넷 발달로 굳이 물건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연결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전략가 톰 굿윈(Tom Goodwin)은 2015년 3월 ‘테크크런치(TechCrunch)’에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기업 우버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며,

네트워크에 접속만 하면 많은 소스코드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공유의 시대에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아마도 많이 연결되고 다양하게 융합하는 것이 미덕이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라고 썼다. 산업화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이버와 물리세계가 연결될 때 접속은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미래학자들은 소유의 시대는 가고, 공유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일찍이 2000년에 리프킨은 『접속의 시대(The Age of Access)』라는 책을 발표해 소유의 종말을 예고했다.²⁾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제목이 『소유의 종말』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자본주의적 소유는 필요하지 않으며 물건을 빌려 쓰고 인간의 체험도 돈을 주고 사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갈파한다. 몇 해 전 H캐피탈의 광고를 떠올려본다. 토크쇼의 전설 래리 킹이 출연해 ‘차를 타려면 꼭 사야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구매보다 리스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리스나 렌탈은 공유경제의 일반적인 소비패턴이다. 차량 리스, 정수기 렌탈은 물론이고 이

제는 침대, 안락의자, 고가의 헬스기구까지도 빌려 쓰고 있다. 법학자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는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력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방식을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고 명명했다. 물품, 생산설비, 서비스 등을 개인이 모두 소유할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소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융합과 네트워크의 연결

오늘날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메이커운동에서도 ‘오픈소스’가 일반적이다. 접속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을 통해 무상으로 공개해 누구나 이를 사용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오픈소스는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기반으로 개량하거나 응용할 수도 있다. 디지털 융합과 네트워크 연결은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다. 네트워크에 접속만 하면 많은 소스코드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공유의 시대에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아마도 많이 연결되고 다양하게 융합하는 것이 미덕이 될 것이다. 근대 초창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지만, 미래에는 ‘나는 접속하고 연결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³⁾



2) 제러미 리프킨 저, 이희재 역, 『소유의 종말』 민음사, 서울, 2001년

1) 제러미 리프킨 저, 『한계비용제로사회』 민음사, 서울, 2014년

온종일 돌봄과 학교의 역할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 이후, 정부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온종일 돌봄 체계’는 맞벌이 부부나 소외계층의 자녀 등 부모 부재 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호 체계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학원에 가 있거나 했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돌봄 체계 구축에 공적 확대 필요

최근 정부가 이처럼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공적 돌봄 공급을 확충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은 인구구조와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볼 때 옳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훨씬 커지고,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고 경력 단절을 겪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할 중요 국가 정책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제안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과 관련하여 하교 시간을 획일적으로 3시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은 현재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정책의 당사자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 돌봄 기능

관련 학교의 역할에 대한 강조만 있을 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우리에게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왜 하교시간이 연장되어야 하나?

초등학교 하교시간 연장 논의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자녀의 양육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최근 교육현장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왜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의 하교시간이 연장되어야 할까? 저출산위는 사교육 과잉과 아이들의 낮은 행복도를 이유로 꼽았지만, 결국 아이들 의견보다는 부모의 보육 상황이 논쟁의 중심에 선 모양새이다.

한편,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초등위원회와 참교육연구소가 초등 3~4학년생 5천133명과 교사 4천7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초등학생 71%와 교사 95%가 초등 저학년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방안을 반대한다고 나왔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반대 이유로는 ‘학교에 오래 있으면 피곤하다’와 ‘학원가는 시간이 늦어진다’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위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의 수혜 대상인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현장에 대한 의견을 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갑자기 늘리는 것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초등 교육과정 전체를 손봐야 하는 것으로

단시간에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저출산위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제안된 ‘(가칭)더 놀이 학교’ 도입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는 물론, 학교 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학교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다.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우리 아이들이 자주 듣게 되는 말은 “뛰지 말아라”, “장난치면 다친다”와 같은 잔소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심리적 상황은 한마디로 ‘고되다’이다. 낮은 공간, 낮은 친구들, 낮은 교사 등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 자체가 모두 스트레스이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마을 자원이나 환경을 놀이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지금의 상황은 공교육의 담당자로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과 책무성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러한 국가개입은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의 의미를 부정한다기보다 대부분 안전에 대한 책임 등 운영의 어려움, 준비의 미흡, 업무 과중, 경직된 교직문화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담당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다. 특히 아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시간 연장 정책을 고민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한 정책당사자인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학교에서 공교육으로서 하교시간 연장이 왜 등장하였고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충분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갑자기 늘리는 것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등 교육과정 전체를 손봐야 하는 것으로 단시간에 결정할 문제도 아니다. ㉠

참고문헌

1.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if-blog.tistory.com/8240>
2. 에듀동아(2018.06.28). 교육부,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3년간 80억 원 지원.
3. 연합뉴스(2018.09.27). “초등학생 71%·교사 95%,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반대”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 - 놀이를 더해 행복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 -. 제7차 저출산, 고령화 포럼 자료집 (2018.08.28).
5. 신현석(2017). 한국 교육행정학의 정체성. 교육행정학연구, 35, 195-232.
6. 전세경(2018).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 필요성과 쟁점에 대한 토론. 제7차 저출산, 고령화 포럼 자료집. 99-102, 107-111.
7. 한희정(2018). 획일적인 정책 추진은 구시대적 유품. 토론문. 제7차 저출산, 고령화 포럼 자료집. 115-134.
8. 홍소영(2018). 초등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 발표 4. 제7차 저출산, 고령화 포럼 자료집. 53-61.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출산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해도 저출산의 문제가 고용, 교육, 주거, 돌봄 등 사회 전 분야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 일자리 문제부터 육아와 보육, 교육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걸쳐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위가 국가 주도로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려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육아와 보육 그리고 교육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출산위가 제안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일제 학교이다. 저출산위는 사교육 방지, 학력신장 등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오후 3시 이후 모든 학년이 동시에 하교하는 전일제 학교 운영을 미래 교육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저출산 문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당장 교육계는 저출산위가 제시한 방안이 실효성이 없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약화시킬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도로 뒷받침해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고 학교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또 다시 학교에 교육기능이 아닌 돌봄 역할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를 돌봄과 양육을 포함하는 전일제 생활학교로 변모시켜 나가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학교개혁에서도 확인되는 것이고, 학교의 기능의 확대에 대한 범사회적 요구를 교육의 본연의 과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매개 고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출산위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저출산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돌봄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함께 성평등, 가족 형태 다양성, 다문화성, 일 가정 양립, 보육 인프라,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산과 육아가 망설임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무릎을 맞대며 온종일돌봄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는 손쉬운 방법에 치중하고 있고, 이 정책이 교사의 부담, 학생 부담, 학교가 해야 할 본래 기능으로서 교육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육계는 어떤 대안을 내세우는가? 방향은 간단 명료하다. 저출산 문제에는 소득수준과 생활환경, 자녀관과 결혼관, 삶의 질에 관한 문제 등 경제, 노동, 교육, 육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학교는 고유 기능인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 방과후 학교, 보육의 기능은 지자체가 책임지면서 마을의 자원과 환경을 돌봄과 보육에 친숙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자

필자는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부담 증가, 학생의 학습권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우선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육계의 진단과 우려에 동의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봄은 사회의 여러 기능 중 하나라기 보다 사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자체가 돌봄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돌봄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당연히 저출산을 비롯해 양극화, 고령사회, 과열된 사교육 등 사회의 제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인간을 존엄하고 인간답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다음으로 돌봄이 더 이상 ‘개인적’이며, ‘집안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동의해야 있다. 이러한 접근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 같지만, 각자생존에 익숙한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들의 선택권이나 자녀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에 익숙하고, 돌봄도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최상의 분배를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택을 자유, 평등, 정의로 접근한다. 이렇게 돌봄이 개인화, 가족화 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권력이 있는 집단이 자신의 기여를 좀 더 가치 있게 보이거나 좀 더 돌보이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결론적으로 돌봄의 개인화, 가족화는 분배의 불평등과 배제를 낳고, 민주주의의 불평등, 사회적 배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돌봄의 사회성에 대한 강한 신뢰와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돌봄이다

마지막 이야기는 사회의 존재이유가 ‘연대’하면서 ‘함께 돌봄’ 때문이고, 돌봄의 개인화, 가족화를 넘어서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앞의 두 가지와 비교해 이 율배반적이다. 국가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함께 돌봄’의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개입하는 것이 좋다.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연장이 일부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3시에 하교하게 한다는 것은 돌봄, 저출산 문제, 공교육의 강화 문제 어느 것 하나에도 타당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저출산의 문제를 노동정책, 주거정책, 부실한 보육정책, 긴 노동시간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얽히고설켜 육아를 끔직한 일로 만드는 사회의 문제로 인식한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돌봄정책을 사회정책과 교육정책 가족정책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정책으로 접근하면서 돌봄의 맥락성, 복합성,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의제로 대통령직속위원회라는 테이블 위에 올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총론적으로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돌봄을 만들고, 각론적으로는 국가와 사회가 중재하면서 서로 다른 역할을 지닌 사람이 서로를 돌보는 책임을 받아들이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시민이 서로를 돌봄으로서 민주주의가 채워지고, 민주주의가 돌봄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유능함을 보일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교육이 혁신학교를 확장하여 상실된 마을공동체를 교육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담론을 앞장서 제기했듯이 돌봄을 통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데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돌봄이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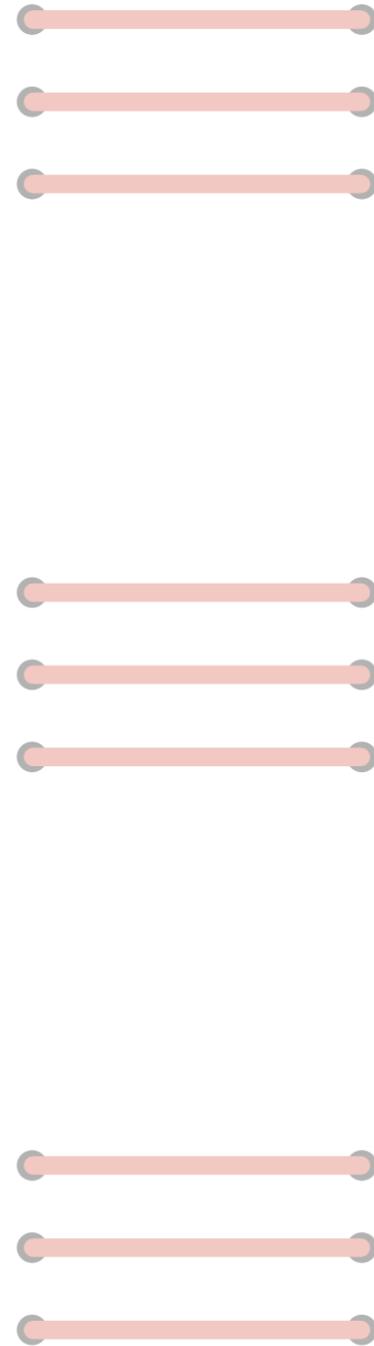
무기력한 아이들, 어떻게 지도할까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은 1964년에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개를 우리에 가두고 전기를 흘려보낸 다음 반응을 살펴본 것이지요. 한 우리에는 간헐적 우리 앞 패널을 코로 누르면 전기충격이 사라지게 했고, 다른 우리에는 패널을 설치하지 않고 충격을 그대로 받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뒤,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흐르는 상자에 개들을 가두고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패널이 있던 우리의 개는 전기가 흐르자 칸막이를 넘어 도망갔지만, 패널이 없어서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야 했던 우리의 개들은 전기가 흐르는 동안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실험에서 도망가는 것을 포기했던 반응을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만나는 무기력한 학습자들에게도 학습된 무기력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도 나는 안 된다고 믿는 학생의 내면에는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한 강력한 틀이 있습니다. 내면을 먼저 바르게 세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셀리그만 교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관이 학습되듯이, 낙관도 학습된다고 말입니다. 셀리그만은 이를 '학습된 낙관주의(learned optimism)'이라고 했습니다. 낙관을 연습하듯이 꾸준히 시도하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믿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실에서 무기력한 학습자들에게 어떤 지도를 해야 할지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만나는 무기력한 학습자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이렇게 다가가자

① 성취의 경험을 맛보게 한다.

큰 목표를 이루는 것만 훌륭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을 해내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대단한 일입니다. 작은 성취가 큰 성취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교사가 먼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② 자신의 강점을 찾아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게 한다.

조금 넓혀 생각하면 어떤 것도 사회에선 훌륭한 재능으로 쓰입니다. 학생들이 서로 잘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주게 하세요. 영어, 수학 잘하는 아이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달리기 잘하는 아이도 공부 잘하는 아이고,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도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인식을 바꾸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③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한다.

사소한 일에 가치를 부여하면 일하는 이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공부도 가치 있고 발전적인 일임을 학생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공부를 왜 하지?', '내가 공부를 하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등의 주제를 주고 학생들에게 1천자 이상 에세이를 써오게 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게 했습니다.



④ 나는 오늘도 성장한다고 믿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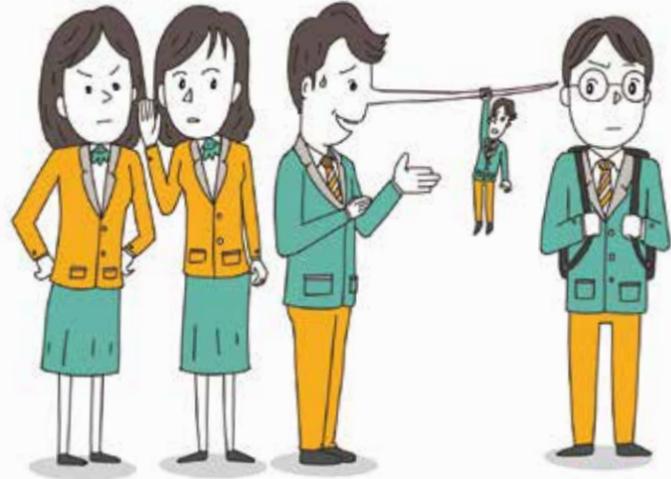
우리 뇌는 가소성이 있다고 합니다. 뇌는 언제나 성장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나무처럼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믿게 해주어야 합니다. 성장하고 있다고 믿으면 지금 조금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지요. 이렇게 꾸준히 지도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단원평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으니 다음엔 잘할 거예요"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쯤 되면 낙관이 학습된 상태라고 봐야겠지요.

매일 조금씩 나아진다는 믿음은 학생에게도 중요하지만 교사에게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믿는 교사는 쉽게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기에 잠시의 불편함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이와 함께 교사 또한 자라고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②

도덕지수 낮은 영철이

흥사단(2017년)에서 중·고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한 고교생이 55%였다고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성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도덕지수가 낮은 아이의 마음에 이기주의, 마키

아벨리즘, 나르시시즘, 악의적 성향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 도덕적으로 무심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영철 문제 수학 선생님 한 분이 상담실에 찾아오셔서 고민을 털어놓으셨다. 점심시간 20분 전 영철이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더니 수업을 마치기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제야 펄쩍 지난주 이 시간에도 영철이가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셨다. 교내 식당에 1등으로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거짓말을 했을 거란 의심이 들어서 화장실을 확인해 보았더니 영철은 거기 없었다.

얼마 후 영철이가 교무실 문을 광 열고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제가 수업시간 빼먹었다고 결과처리하실 거라면서요? 저 억울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애야, 화장실에 없던데?” “우리 반 앞에 있는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서 2층 화장실로 갔어요. 그러니 거긴 당연히 없죠.” “그래도 일을 다 봤으면 돌아와야지.” “볼일 다 보니까 마침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실로 돌아왔는데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가셨던데요. 그래서 식당에 갔어요.” “네가 교실에 왔을 때 누가 거기에 있던?” “아무도 없었어요. 다 식사하러 갔던데요.” “식사하러 가지 않았던 아이들도 있었어. 아무도 너를 못 봤던데.” “아, 지금 생각해 보니 교실로 가다가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서 곧바로 식당에 갔어요.”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언제 제가 말을 바뀌요?” “지난주에도 이런 식으로 안 돌아온 것 같은데?” “제가요? 전 기억에 없는데요.” 대화는 교착 상태에 들어갔고 선생님은 진실을 알 수 없어서 당황했다. 일단 교실로 돌아가 있으라 하자 영철은 불손한 태도로

맨 먼저 정당한 분량의 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에는 벌이 따른다는

조건반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후 침착하게 도덕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무실을 나가면서 벽을 주먹으로 치면서 투덜거렸다.

선생님은 부득이 학생부 선생님께 조사를 부탁했고, 학생부에서는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영철이가 교실을 나간 시간과 식당에 입장한 시간을 확인해 주었다. 선생님은 영철이가 이토록 뻔뻔하게 거짓말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혔다**. 영철을 다시 불러서 타일렀다. “영철아, 나는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니? 내 생각에는 네가 거짓말을 하고 식당에 간 것 같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니? 솔직하게 말하렴. 그러면 용서를 해주겠다.” “전 더 말할 게 없어요. 억울하다고요.” “그럼 부득이 학생부에 보내서 사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뻘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제야 영철은 움찔했다.

영철은 재빨리 학생부 간부로 일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교무실로 뛰어와서 선생님께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죄송해요. 사실은 화장실에 가지 않고 곧바로 식당에 갔어요. 선생님은 성자 같은 분이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일 없다고 하셔도 좋아요. 용서해 주실 거죠?” 선생님은 기가 막혔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기가 막힌 연기로 선생님을 속이려 들 뿐만 아니라, 불리해 지면 용서를 빌면서 빠져나가려는 품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상담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의 하소연을 듣고 말했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영철은 품행장애가 있는 학생인 것 같군요**. 교육자로서 학생을 좋게 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이런 학생들은 도덕심이 매우 약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사이코패스로 변형되기도 하고요. 조기에 발견하셨으니 지도를 해봐야겠어요.” “어떻게 하죠? 전 교직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아이를 다루는 방법은 모르는 걸요.” “선생님처럼 마음씨가 착하신 분은 차마 벌을 못주시고 용서하시는데, 그럴수록 이런 아이들은 착한 사람의 친절을 이용하는 데 익숙해질 뿐이죠. 따라서 맨 먼저 정당한 분량의 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에는 벌이 따른다는 조건반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짓을 못하는 제동이 걸리죠. 그 후 침착하게 도덕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영철은 **선도위원회에 넘겨져서 벌을 받았다**. 영철에겐 유창한 말과 반성하는 표정을 사용해서 번번이 벌을 피하던 방법이 통하지 않았고, 나쁜 짓을 하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배운 최초의 사례였다. 영철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지금부터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정직과 원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⑤

우리는 왜 혐오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혐오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계층 사이에, 지역 사이에, 남녀 사이에 혐오 분위기가 심해지고 있으며, 또한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도 혐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언어에도 혐오적 표현들이 많이 스며들고 있다. 물론 이런 혐오 현상이 우리 사회에만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인종, 민족, 성별, 종교를 사이에 두고 존재해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런 혐오 감정을 갖는가? 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기준만을 중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살아가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려는 문화적 존재이다. 익히 알다시피 문화란 인간이 거주하는 자연환경이 자기에게 맞지 않아 이를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로 전환한 제2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문화가 개입하여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협하게 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공격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문화들 사이의 갈등이나 충돌 역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중시하는 삶의 기준을 절대화하면 서로를 혐오하게 되고, 심지어는 증오하게 된다.

아바타 삶이 만든 자아의 고립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런 현상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우리의 삶이 과거에 비해 경쟁이 지배하는 도시의 삶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또한 인터넷 문화와 더불어 자라난 아바타의 삶에 더 많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우리는 서로의 삶의 역사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어느새 간접적이고 익명적인 만남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 우리는 함께 한 기억이나 체험마저도 상실한 채 그저 도시공간과 가상공간에서 서로 간접적이고 형식적으로 관계 맺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 서로의 역사에 대해서 묻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그래서 서로에 대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혐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타자를 통해 마련됨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서 의례적으로 대화하는 일이 잦아진 오늘의 사회에서는 서로의 처지를 제대로 인식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갈등이나 충돌도 사무적으로 처리하거나 배타적으로 처리하기가 쉽다. 그래서 그런지 '무지의 베일'에 기초하여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를 마련하고자 한 롤즈의 자유주의적 기획도 공동체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곤 한다. 이들의 비판에서 의하면, 비록 그의 기획이 공정성을 약속해주는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처지에 기초한 연대적 관계 마련에서는 미흡하다. 실제로 샌델도 롤즈의 이런 입장에는 고립된 '무연고적 자아'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자유주의적 자아관에 작동하는 자아의 고립성 문제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이르러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익명성에 바탕을 두고 간접적 만남을 추구하는 아바타들 사회에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

타자에 대한 책임과 나의 존엄성

이처럼 타자의 처지에 대한 인식 부재에 기초한 간접적 만남이나 익명적 만남이 더 심해질수록 서로에 대한 편견도 더 강해질 것이며 형식적 관계 맺기도 더 잦아질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혐오의 강도도 더 높아질 것이다. 더욱이나 과도한 의심과 경쟁으로 인해 타자와 관계를 끊은 채 자기몰이에 더 몰입하는 사회에서는 그 같은 상황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자기몰이에 쫓기는 현대인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타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게다가 현대인은 자기를 부정하는 타자에 대해 견디기 어려워하며 타자를 서둘러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현대인은 분노조절장애를 보여주기도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원의 조사(2014,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에 의하면 이미 2012년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 관용과 배려 지수가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처지였다.

사르트르가 주장하듯이 타자의 시선이 나의 지옥인 이상 타자에 대한 나의 혐오는 극복이 쉽지 않다. 나르시시즘적 주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한 우리는 혐오 현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자와 나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 나치가 가한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몸소 경험한 철학자 레비나스는 서구 근대성에 내재된 주체 중심의 삶과 이 삶이 낳은 폭력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를 넘어서기 위해 규정 불가능한 타자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주체의 자리를 재정립하려고 한다. 그는 주체의 진정한 자유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혐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타자를 통해 마련됨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책임을 통해 자신의 존엄성을 마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천년의 빛을 머금은 고장 영광

가슴 속 불씨가 아직 살아있을까.
이 붉은 씨를 피워올리면 다가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
들판은 수확으로 분주하고 중심
가는 축포를 쏘아 올리기에 바쁜
가을 어느 날, 불꽃을 닮은
꽃무릇을 찾아 나선다. 상사화의
속이라 하여 상사화로도 불리는
바알간 꽃과 흥색 노을이 완벽한
가을을 알려오는 곳, 영광으로 간다.

가을이 오는 길목, 불갑사 꽃무릇

상사화 전설이 깃든 백담호, 까치가
된 스님 설화가 담긴 벽화, 불길을 잡
재웠다는 사천왕상. 곳곳에 깃든 이야
기가 여행객들의 발을 붙들어서일까,
꽃무릇이 초대장을 보내왔기 때문일
까. 가을이면 불이 난 듯 온통 벌겍게
물든다는 불갑사 앞은 이른 시간부터
인파로 가득하다.

불갑사 초입, 거대한 물레방아가
발을 붙든다. 차에서 내려 불갑 테마
공원에 들어선다. 6년에 걸쳐 완공되
었다는 이 공원은 산책로와 정자, 인
공폭포와 관상어, 연꽃과 화단, 조형
물로 장식된 수변 생태 단지다. 아기
를 안은 젊은 부부들과 팔짱을 낀 연
인들과 지팡이를 짚은 나이든 청춘

에게 청명한 하늘이 잘 왔노라는 손
짓을 보내온다. 올가을은 어떤 추억
을 남겨줄지, 영광은 또 어떤 이야기
를 전해올지 하는 생각에 잠겨 걷다
가 길을 돌아 나온다. 빨간 꽃무릇을
내려다보고 있는 천년 방아를 뒤로하
고 불갑사로 향한다.

대추, 무화과, 모시떡이 죽 늘어선
길을 지나오니 멋스럽게 꾸며 놓은
길이 길손을 반겨준다. 기타를 든 가
객의 노래를 함께 흥얼거리며 들어선
길에 꽃무릇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나무 그늘을 지붕 삼아 붉디붉은 색
을 드높이고 있는 꽃무릇. 광활한 꽃
밭이 전해온 적색 장관이 명치를 찌
른다. 무리 지어 핀 빨간 꽃잎들의 군
무가 아득하고 아찔하다. 상해버리면

이듬해에는 개화하지 못한다는 꽃, 피
고 지는 시기가 달라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는 슬픈 꽃, 푸름과 붉음을 멋스럽게
피워올린 꽃무릇 길을 구름 위를 걷듯
사뿐히 지나온다.

꿈처럼 꽃밭을 거닐다 이른 종착지는
불갑사다. 붉은 꽃으로 장식된 황색 돌
담 가운데 불갑사로 들어가는 문이 있
다. 꽃을 무대로 독무를 펼치던 나비를
길벗 삼아 대웅전으로 향한다. 백제에
불교를 들여온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세운 절 불갑사. 역사가 긴 만큼 대웅
전을 포함한 보물과 문화재에 얽힌 이
야기가 사찰 곳곳에 서려 있다. 까치가
된 스님 이야기를 새긴 벽화를 눈에 담
고 대웅전으로 들어간다. 북쪽에 본존
불을 둔 다른 절들과 달리 불갑사는 서

- 1. 상사화 군락지
- 2. 불갑사 입구
- 3. 불갑사 불상



쪽에 본존불을 앉혔다. 흔치 않은 배치
에 멈칫한 것도 잠시, 태초에는 상하좌
우가 없었다는 생각이 나를 지나간다.
위아래를 가르고 동서남북이라는 이름
을 붙이고 빠르고 느림을 이름 지운 것
은 자연이 아닌 사람이다. 그러니 동쪽
을 향해 앉은 불상이 이상한 게 아니다.
뒤돌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은 인위에
길든 내 눈일 것이다.

절에서 나와 보리수나무와 바위로 가

득 찬 선 명상체험실
을 지나온다. 선 명상
체험실 도안으로 사
용했다는 의상의 화
엄일승법계도를 사
용했다는 안내문을
읽는다. 간다라 사원에서 본 따 만든 탑
원을 둘러보며 '갓가지 꽃으로 장엄하
는 일승(一乘) 진리 세계'라는 뜻의 화
엄일승법계도를 곱씹는다. 문득 땅에 뿌





4



5

리를 내리고 생의 불꽃을 피워올리는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우리네 모습을 닮았다는 생각이 나를 지나간다. 전소하듯 피었다 지는 꽃무릇처럼 남은 열정에 다시금 불을 지펴야 할 때인 것은 아닐까. 참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이 불그스레한 꽃이 내 삶을 향한 사랑의 불씨를 심어준다. 식어버린 가슴에 사랑의 씨를 뿌려준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법성포

빛에 따라 다른 모습을 비춰내는 곳, 영광에서의 두 번째 여정에는 시리고 찬란한 역사가 깃들여 있다. 영광에는 한국의 4대 종교 문화 유적지가 있다. 법성포를 통해 들어온 불교를 기념하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원불교 창시자 탄생지에 있는 원불교 영산성지, 북한군의 교회 탄압에 대항해 19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천주교 신도들의 순교지인 천주교인 순교지가 그것이다. 시간이 켜켜이 겹쳐져 있는 영광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로 간다. 백제 불교 최초도래지가 있는 법성포는 백제에 불교를 들고 들어온 마라난타가 최초로 발을 디딘 땅이다. 불교를 뜻하는 법(法)과 성인을 뜻하는 성(聖)을 합쳐 법성포라는 지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못 길을 걸어 마라난타 승려가 불교를 들여온 것을 기념해 만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에 도착한다.

간다라 양식의 일주문인 상징문을 지난다. 돌을 쌓아 올려 만든 간다라 양식의 문을 넘어서자 사면대불상과 부용루, 만다라 광장과 존자정, 간다라 유물관과 탐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전형적인 한국 절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흥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인도도 백제도, 기원전도 2018년도 아닌 시공을 초월한 이곳의 독특한 분위기에 취해 앞을 그리고 삶을 곱씹는다. 적지 않은 곳을 돌아다녔는데도 발 닿는 곳마다 처음 보고 듣는 것투성이다. 걸어도 걸어도 배워도 배워도 부족한 걸 보니 살아온 시간만큼 채워지는 게 아니라 비워지는 게 삶인가 보다. 그리고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다시금 새 여행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 그 자체인가 보다.

마리난타 조각상을 안치한 유물전시관에서 간다라 미술을 눈에 담고 나와 법당으로 향한다. 부용루 벽 원석에 새겨진 석가의 생애에 둘러싸여 못을 내려다본다. 한자리에 앉아 '존재'라는 긴 사색의 길을 떠난 싯다르타와 간다라에서 쿠차와 장안, 길림성을 거쳐 백제에 들어와 불교를 전파한 마리난타. 하나로 이어지는 두 여정이 가슴을 파고든다. 여행은 새로운 것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나를 보는 새 눈을 주기에

의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퍼런 물결이 되어 속을 울렁이게 하는 감동을 손에 쥐고 백수해안도로 발길을 돌린다.

아름다운 길의 대표주자, 백수해안도로

영광 대교를 거쳐 모래미 해변에 근처에 이른다. 바다를 거닐고 있는 여행객들이 해안도로에 들어서려던 내 손을 잡아끈다. 핸들을 돌려 차를 세운 후 사장에 내려선다. 가을 바다는 북적거리는 여름과도 고독한 겨울과도 다르다. 머금고 있던 빛을 안개처럼 피워올리는 영광의 가을 바다에는 기대가 있고 사색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 수평선을 캔버스 삼아 꽃무릇에서 받은 빨간 불씨와 백제 최초 불교도래지에서 받은 은은한 온기를 흠뻑려본다. 화기는 삭

고.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이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꽃내나는 길손의 열정을 손질해낸다. 그와 함께 정수리를 훌쩍 넘어선 해를 수면 위에 담아내며 유유히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간다. 수평선 위에서 산란하는, 노랗다고 하기도 붉다고 하기도, 그렇다고 푸르다고 이르기에도 묘한 빛이 바다에 영광을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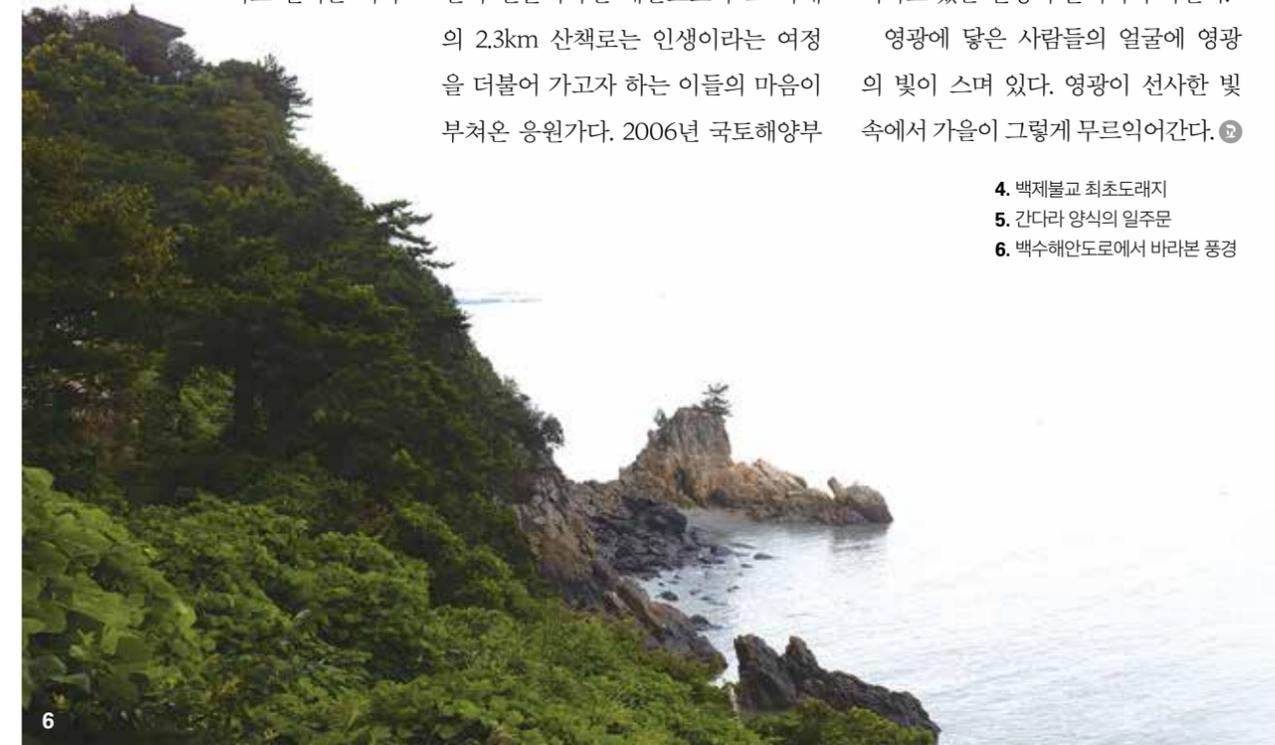
아름다운 길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백수해안도로는 백수읍 길용지에서 백암리 석구미 마을까지 이어져 있다. 기괴한 바위와 넓게 펼쳐진 갯벌, 바다와 석양이 빛어내는 풍경이 장관을 연출한다. 무작정 달리고 싶을 때, 머리를 비워야 할 때, 목전까지 차오른 감정을 터트려야 할 때, 누구보다 믿음직한 벗이 되어 줄 것 같은 길이 눈앞에 있다. 기암절벽과 광활한 수평선과 빛이 자연의 선물이라면 해안도로와 그 아래의 2.3km 산책로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더불어 가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 부쳐온 응원가다. 2006년 국토해양부

에서 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고 2011년 대한민국 자연경관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수식은 이 길이 전하는 감동에는 사족일 뿐이다. 지나 본 후에야 품을 알 수 있고 직접 발을 디더 봐야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이 길일 터, 해안도로를 관통하며 영광의 바다와 땅과 하늘을 가슴에 담는다.

해가 떨어지고 있는 시간, 빛은 깊이를 더해가고 황혼은 짙어만 간다. 소중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떨어지는 해를 보며 새날을 기약하는 것, 두 손 모아 살려낸 불씨를 내일이라는 장작에 놓을 채비를 하는 것, 그리하여 나라는 불길을 화마가 아닌 온기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삶이 아닐까. 내일을 향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모든 이들이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열정의 불씨이지 아닐까.

영광에 닿은 사람들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스며 있다. 영광이 선사한 빛속에서 가을이 그렇게 무르익어간다. ㉞

- 4.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 5. 간다라 양식의 일주문
- 6. 백수해안도로에서 바라본 풍경



6

NEWS BRIEFING

happyedu.moe.go.kr 2018.10

통학버스
안전 확인 장치 도입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 간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대당 30만 원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만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발표



교육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의 기업맞춤형 집중교육과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의 결합을 핵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 및 기업이 제시하는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다학제적 창의융합교육센터) 구축 등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조기에 취업을 확정하고, 기업에 재직된 상태에서 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성장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책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 학습·체험공간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것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교육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관리 및 감독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며,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 또한 대학생협동조합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몽골·태국 등
4개국 교사 49명 초청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 주관하는 2018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으로 말레이시아·몽골·인도네시아·태국 교사 49명이 9월 7일 방한하였다. 이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매년 한국교사 90명을 7개국 현지 학교에 파견하고 상대국 교사 90명을 국내 학교에 초청하여 3~5개월간 전공 교과 및 자국어·문화 이해수업을 실시한다. 파견 한국교사들은 현지 활동을 통해 다문화교육 이해 증진, 글로벌 교육역량 향상은 물론, 현지 학교에 한국 교육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등 개도국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대상국 초청교사들은 국내 배치학교에서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며 학생·교사·지역사회에 다문화 관련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누리과정 토론회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현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교육주체인 현장교원에게 누리과정 운영 및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유아교육·보육계 전문가 2명의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이라는 주제 발표 후,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참여한 교원들 간의 그룹별 분임토의 및 토의 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교사들은 유아놀이중심 개정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현행 누리과정 중 초등 1학년원을 넘는 학습요소의 배제,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방안 등을 누리과정 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놀이중심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지원과 교사당 유아 수 감축, 현장의 한글 선행교육 문화 개선 등도 제안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포럼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누리과정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미래사회 역량 중심 누리과정 시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안된 유아교육 제도개선 과제 또한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 전국 학생
통일이야기 한마당 개최



교육부는 9월 7일(금) ~ 8일(토) 동안 한반도 경기도 연천군의 통일미래센터에서 통일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2018 전국·학생 통일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열린 이번 행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내 행사, 지역 단위 행사를 거쳐 초·중·고등학교 총 38팀(206명)을 최종 추천하여 참여하였다. 행사 첫째 날(7일)에는 초·중·고 학교 급별로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상상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참여형 체험활동과 탐구토론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하였고, 둘째 날(8일)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여하는 <통일희망 다짐마당> 프로그램으로 오두산 통일전망대(경기도 파주시)를 탐방하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OECD 교육지표
2018 결과 발표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OECD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내용은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교육에 투자된 재정,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등으로 구성된다.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에 투자된 재정에서는 GDP 대비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등이, 마지막으로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에서는 연령별 취학률과 고등교육 이수율,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등의 지표가 분석되었는데, 전체적으로 OECD 평균에 근접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제작하여 9월 10일 전국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하였다. 가이드북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하였다. 아울러,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등도 반영하였다.

모든 특수학교 164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교육부는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2018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164교)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16~17년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나타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유학기 확대 요구와 현장 의견 수렴 및 확대·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 및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는 개별 맞춤형 소질·적성 계발로 미래생활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다양한 장애유형 및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학교 6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정하여 자유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특수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기능 영역과 연계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9월호



명예기사의 까칠한 수다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한 세상

2016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반입·소지를 금지하는 규정 등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각급 학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과 함께 ‘학교의 교육적 제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예기자들이 <교육 썰전>의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김정민
대학생

현재 대학 강의실에는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고, 태블릿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연동해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정보 기술이 발달하는 상황에서 기기 사용을 반대하기보다, 건전한 스마트 기기 사용 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과 더불어 그에 맞는 기본예절 등 올바른 사용법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사로서 학생들의 스마트 폰 사용에 신경이 쓰여요.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어야 할 시간에 즉흥적인 즐거움을 주는 스마트 폰에 몰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에 대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는 관심도 부족하고 서툰 것을 볼 때 안타깝지요. '정보의 바다'인 스마트 폰은 유용한 정보도 많지만 유해사이트와 쓰레기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스마트 폰 사용으로 21세기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안전한 ICT, 행복한 스마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노력했으면 해요.

조원표
교사

요즘 학교에는 스마트 교실이 있습니다. 이 교실에서 교사는 스마트 패드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미션을 패드를 이용하여 과업을 완수하고 실시간으로 다른 학생들의 결과물을 공유하며 수업에 참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많은 교실의 모습일 테지요. 스마트한 세상에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절제할 힘을 키우는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어려서부터 무분별한 노출이 아닌 꼭 필요하고 시기적절하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도록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신현태
교사

요즘 스마트 기기 활용이 대중화되어 학생의 삶에서 스마트 기기를 못 쓰게 하긴 어렵겠지요. 다만 학교에 서라도 스마트 기기를 제한하는 건 찬성합니다. 교육도구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건 좋으나 사람을 만나거나 직접 체험을 통한 경험의 기회를 늘렸으면 합니다.

김은영
학부모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를 보며 배운다고 하더군요. 매일의 관심사와 활동이 달라지는 시기이지요.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두고 관련된 미니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등 스마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승욱
교직원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시력인 것 같아요. 성장기 아이들이 스마트 폰으로 인해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어른들도 폰으로 인해 시력이 약해지니 아이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시력보호 기반 위에 적극적인 스마트 교육도 가능하다고 봐요.

김민중
교사

지난호 독자 리뷰

세계의 교육 변화를 읽고

세계시민교육이 다루고 있는 영역들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난민 문제, 다양한 형태의 차별 등에 따른 인권 문제 등. 특히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의 바른 이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라는 어울림 교육으로 올 한 해도 아름답게 마무리해보리라 다짐합니다.

- 모니터단 김연순

정책N전망을 읽고

학교폭력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아이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쟁적인 학교 환경, 소통 부재 등이 아이들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다시금 읽힙니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적응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사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정신적 여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 모니터단 신윤희

Event

10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대학'을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이행을 지어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이지원 경기도 용인시 예현로 15
조향원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74
최미진 전남 순천시 봉화2길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다양한 교육정보를 만나보세요.

<https://happyedu.moe.go.kr>

정확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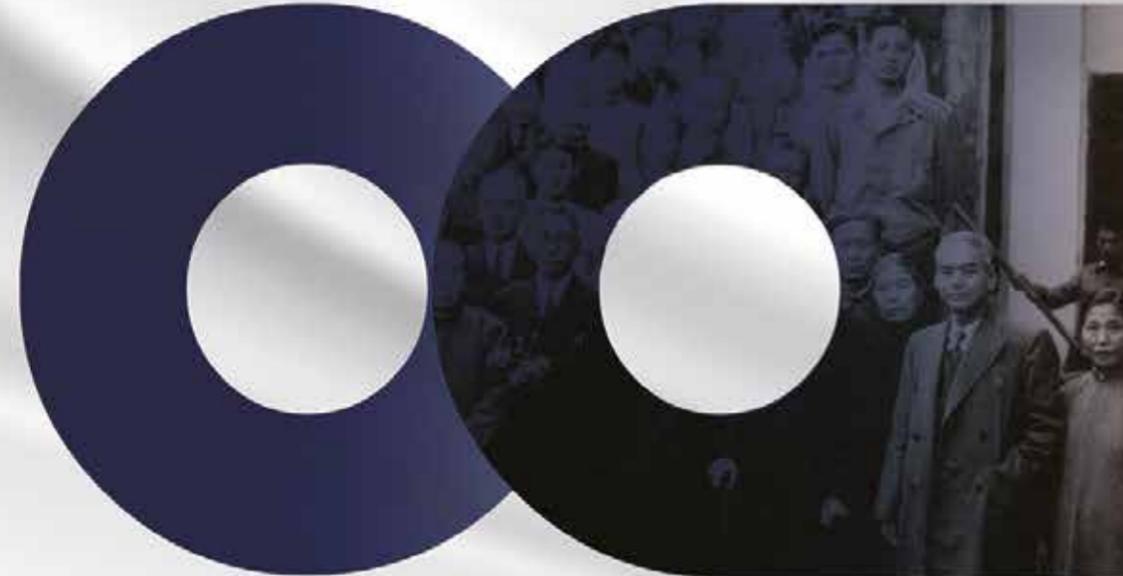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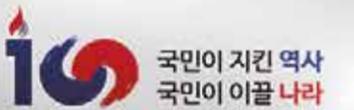
발행일 2018년 10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임창빈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교육연구사 정용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73

편집실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이대원 최원석
디자인 홍지화 홍수명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나에게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란?
<http://www.together100.go.kr>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2018.10.01~10.31

접수기간 2018. 10. 01 ~ 10. 31 (한 달간)

공모주제 나에게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란?

- 격동의 시기였던 1919년,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어떤 삶을 선택했을까를 상상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최종 화면에 위원회 영블립 노출 - 홈페이지 다문)

참가대상 (개인 또는 팀 가능) ① 초·중·고생 ② 대학생, 일반

공모분야 ① 영상 ② 웹툰

작품규격 영상

· 30초 ~ 5분 UCC 영상
· 해상도 1280×720px 이상
· 유튜브 업로드 후 URL 제출

웹툰

· 웹 게재용 규격(스몰형식)
· 10컷 내외의 완결본, 해상도 300dpi 이상
· 제출유형 jpg (수상작은 AI, PSD 등 원본파일 추후 제출)
· 크기: 가로 720px, 용량 10MB 이내

참여방법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식홈페이지 (<http://www.together100.go.kr>) 내 공모전 탭 접속 및 신청서 제출

결과발표 2018년 11월 말 ~ 12월 초

시상내역

종류	상장	인원	상금 (만원, 원)	
			대학생/일반	초·중·고생
대상	대통령	1	500	
금상	국무총리	2	300(1명)	100(1명)
은상	행정안전부장관	4	100(2명, 분야별 각 1)	50(2명, 분야별 각 1)
동상	국가보훈처장	4	100(2명, 분야별 각 1)	50(2명, 분야별 각 1)
특별상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	2	300(1명)	100(1명)
입선	-	12	50(6명, 분야별 각 3)	30(6명, 분야별 각 3)

유의사항

- 출품작은 다른 대회에 입상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출품작은 제3자의 저작권(음원, 영상, 사진, 이미지, 폰트 등), 초상권, 상표권 등 일체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무료 음원사이트(유튜브 라이브러리, 문체부 공유아재 등) 이용을 권장합니다.
- 표절, 모방, 중복공모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공모전 운영사무국 T.02-550-2577

